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2 | 2022 February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거래고객
㈜태일씨앤티 김경수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성남지점 거래고객
㈜세준에프앤비 박승용 대표



contents

2022년 2월호







04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15 **이달의 편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태일씨앤티 김경수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세준에프앤비 박승용 대표

80 **코너 속 편지**
'고라니 선물' 외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엄마가 딸에게

113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징크스와 루틴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2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박신유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여성시대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집으로
'힘내라 청년! 청백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사연을 받아
총 60분께 백만 원씩 청년 희망 장려금을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여성시대 '힘내라 청년! 청백전!'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함께했습니다.

청년, 아빠가 되다!

문준성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29살, 청년 아빠입니다. 2013년 대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신학과에서 신학을 아내는 음악학과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2020년 1월 4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아내와 저는 27살로 요즘 젊은 세대 치고는 빨리 결혼한 편이었습니다. 자그마치 6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부부가 된 저희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단촐한 밥상도 진수성찬 부럽지 않게 맛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죠.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한 터라 이렇다 할 직장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학은 취업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길이 좁기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광주 모 교회에서 전도사로 아내는 피아노

학원 파트 강사로 일하며 두 사람이 생활할 만큼의 수입이 있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죠. 저와 아내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태명은 뭐로 할지, 성별은 무엇일지,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집은 있고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류유산.' 수술을 통해 아기집을 꺼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2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조금 늦는 걸 거라고 굳게 믿고 다른 병원을 전부 다녀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생명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을 붙잡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우리에게 '감동이'가 찾아왔습니다. 트라우마가 남아서 병원에서 초음파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기집과 작은 젤리곰 같은 아기의 모습을 본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에 이제 아이가 나온다면 어떡하지? 하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며 태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돈은 벌면 돼! 젊음이 내게는 무기니까!' 하며 마음을 다잡은 저는 임신 중인 아내에게 학원 일을 그만둘 것을 권했습니다. 전도사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손에 잡히는 대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3시까지는 '공용 킥보드'를 수거하고 재배치하며 배터리를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어서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택배 물류장 하차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사실 결혼한 그 해에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 꿈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학업과 생업, 임신부 아내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다 보니 분신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1년 5월 12일 9시 5분 '감동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연분만은 여러 시도 끝에 실패했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우리 아들.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감동이를 만난 그 순간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피부도 하얗고, 제 목소리를 듣더니 울음을 그치더군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낮고 경직된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감동이 아빠, 감동이가 조금 아픈 곳이 있어요…."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말도 못 한 채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이 입 속에 구멍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선천성 기형-입천정 갈림증'인 '구개열'이 있었습니다. 입천장에 구멍이 있어 코와 입이 막힘없이 뚫려버린 것이죠. '수술을 받고 아직 마취도 깨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라고 설명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은 이런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저를 이끌었고, 아내는 마취가 풀려가는 중에 그 작은 생명인 감동이를 가슴에 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5분도 채 못 안아 보고 저와 간호사, 감동이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가는 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옛

말로 '언청이'라 하는데 감동이는 입술까지 갈라지는 '구순열'이 아니라 입 안에 갈림증이 생긴 '구개열'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고 더는 저도 아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무자비한 코로나19 때문이었죠. 보호자마저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에 분노했지만 별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제 휴대폰을 드리면 사진을 찍어다 주시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약 2주간 아내는 아이 없이 조리원에서 유축하는 일만 하였고, 저는 유축한 모유를 대학병원에 전달해주는 일만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인 거야! 정신 차려.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웃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일대로 했습니다.

2주가 흐르고 아이를 드디어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필요한 검사는 다 받았다는 것과 구개열 말고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장 건강한 아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른 아이들의 부모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감동이의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진료 일정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이 다시 목을 조여 왔습니다.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아둔 돈은 이미 사라졌고, 아내는 회복과 육아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 분유와 기저귀, 특히 구개열 아이들은 특수젖병으로 수유를 해야 합니다. 입천장이 갈라져서 흡입력이 없어서 잘 못 먹기 때문이죠. 특수젖병은 왜 또 그리 비싼지. 모든 부담을 혼자서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게 아빠의 책임감인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는 엄청난 세월을 견디셨구나!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은 제법 아이가 잘 먹고 기어 다닙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적응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아, 물론 몸은 좀 아프지만요.

2022년 대학원 3학년을 마치게 되면 정식으로 목사를 준비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으로 옮겨갈 계획에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21년, 그리고 올해 22년에도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버텨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긴 하지만 오늘도 여성시대를 들으며 힘을 내보려 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제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이제 아빠가 되었습니다. 29살 젊은 청춘이 견디기에는 많이 무거운 짐을 오늘도 묵묵히 짊어지고 갑니다.

특히 올해 5월에 '감동이'의 구개열 수술이 있습니다. 부디 수술이 잘 되길, 그리고 수술비와 회복 기간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저처럼 또는 더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많은 청년분께도 응원 드립니다. 힘내보시게요!

사장님이자 알바생

이정민 |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20살,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이니 전문대라도 가야 하는구나 하고 입학했던 대학엔 애정도 흥미도 느끼지 못했죠. 어릴 때부터 단순하게 옷을 좋아했지만 그걸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한 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21살에 부모님을 설득해 자퇴를 하고 제 생각에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건 판매직이다 생각하고 동대문 옷도매시장에 취직했습니다.

밤 12시 출근, 낮 12시 퇴근. 처음엔 밤낮 바뀐 데 적응하랴 첫 사회생활 적응하랴 정신없었어요. 출근 6시간 전에 잠이 들기도 하고 낮엔 너무 밝아 잠을 못 자서 수면안대를 안 하면 잠을 잘 수 없었죠.

그래도 그 도매시장의 활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들 다 잘 시간 그 장소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모두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더라고요.

동대문 도매시장을 거쳐 23살에 로드숍 옷가게 취직. 흔히 말하는 보세 옷가게였습니다. 정말 운 좋게도 좋은 사장님을 만나 일을 잘 배웠습니다. 직원들도 많은 큰 매장에서 각자 일하기 바빴지만 사장님은 뭐 해라 뭘 고쳐라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 없이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바쁜 와중에 틈틈이 눈은 사장님을 따라다니며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놀러 다닐 때 전 제 일에 만족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쇄골에 빨갛게 뭐가 올라왔더라고요. 자잘한 알갱이가 여러 개 올라왔기에 금방 가라앉겠지 했는데 일하는 중 저녁쯤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 듣는 진단명이고 이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젊으니까 버틴 거라고 하시는데 전 오히려 주변인들 반응을 보고 심각성을 알았죠. 그 뒤부턴 내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잠 잘 자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26살에 어려서 겁이 없었는지 자만심이 자신감으로 감춰져 있던 시절 '나 옷가게를 차리고 싶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거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 동네에 옷가게를 오픈하게 됐어요.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매장 근무 후 새벽엔 동대문 도매 사입을 다녔어요. 직원이나 알바를 두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직원으로 일할 때 많이 느껴서 혼자 발로 뛰었어요. 마냥 신나고 재미있었죠.

그러다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유행되었죠. 한 달간 매장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보기 힘들었어요. 하루에 한 명도 손님이 들어오

지 않는 날은 저녁에 집에 가서 '엄마, 나 왔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날에 첫 사람과의 대화가 되었어요. 메르스는 지나갔지만 매장에 전처럼의 활기는 없어졌어요. 그래도 단골분들이 계시니 힘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주변 가게 언니들이 하나 둘 떠날 때 심적으로 너무 지쳐 대상포진이 재발했습니다. 스팀다리미를 들고 일하다 손님 들어오시는 소리에 손에서 스팀다리미를 놓쳐서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에서 버텨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니 이제 그만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건물주님에게 전화해 "저, 매장을 내놓으려고 합니다"라고 하니 "그럼 내가 들어갈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냈던 권리금에 인테리어 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금액을 들은 건물주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말만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 부동산에 내놓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끝내 다시 연락을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쳐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거 다시 시작해보자. 매출이 떨어져서 옷을 사입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옷을 마네킹에 입혀 놓을 순 없었으니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정해진 휴무는 없지만 일요일은 거의 손님이 없으니 일요일을 고정 휴무로 두고 알바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알바를 알아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일하게 된 곳은 식당. 원하는 곳은 아니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평일과 토요일은 매장을 지키고 일요일은 식당 알바를 나갔어요. 뜨거운 냄비와 음식을 들고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받은 돈은 사입비로 썼습니다. 원래도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주말에 다른 일을 병행하니 힘들더군요. 그래도 포기하려던 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매장을 쉽게 놓고 싶지 않았기에 알바도 빠짐없이 갔죠. 어린 마음에 창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일엔 무슨 일하냐고 물으면 차마 내 가게 한다는 말을 못하고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얼버무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싶다가도 매출이 오르는 날이면 힘이 났어요. 그렇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코로나를 대면하게 되고 버티려고 발악했던 전 백기를 들었습니다. 접기로 마음을 먹고 매장을 내놨는데 양보 없는 건물주님 앞에서 또 백기를 들고 권리금 하나 못 받고 빈털터리로 무직이 되었습니다.

3년 반. 나이 들고 멀리서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잠 못 자고 일해도 행복했던 감정도 느껴보고, 마음에 바닥을 치고 모든 걸 포기해보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른 지금은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쉽게 자만하면 안 되는 거,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사람을 대하는 방법, 힘들 때 내 옆에 있어 준 사람들,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하고 이 경험을 발판으로 30대에는 더 알차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매장을 접으면 난 끝이야, 이제 뭘 해야 하지, 자신이 없어 아무런 생각이 안 들다가도 '난 이 모든 걸 다 겪었으니 모두 다 할 수 있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 사장님들 힘내세요. 20~30대 청년들 파이팅!

〈올해 우리 커플이 꼭 하고 싶은 일〉

[7073] 경남 진주 남자와 대구 여자로서 지금 장거리 연애 중인데, 여자친구가 아직도 서울을 안 가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만 좀 잠잠해지면 경복궁 한복 데이트를 꼭 해보고 싶어요. 커플 한복 입고 사진 찍을 거예요.



[3931] 저는 따뜻한 봄이 오면 충북 제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아내랑 같이 타고 싶어요. 함께 하늘을 훨훨 날고 싶어요.

[4531] 남편과 올해는 존댓말을 써보기로 했어요. 10년 연애하고 20년 부부로 살다 보니 너무 친구같이 말을 주고받는데, 아이들도 커 가는데 좀 더 어른스럽게 존칭도 쓰고 살려고요. 서로 존경하고 살면 더 행복하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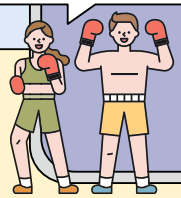
[강석한] 아내는 기타, 저는 드럼 배울 생각입니다. 대학생 딸 피아노 잘 치고 아들은 노래 잘하거든요. 우리 가족 그룹사운드 결성하고 노래해서 앨범 하나 만들고 싶어요.

[김홍규] 저는 주로 밤부터 새벽에 일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엔 아내와 주말에 가죽 공방에 다녀보기로 했어요. 아내는 저를 위해, 저는 아내를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지갑과 가방을 만들어서 교환하고 싶어요.

[정형민] 아내가 뜨개질을 배우려고 알아보는데 저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남자치곤 좀 섬세한 걸 좋아해서 저한테 뜨개질이 딱이네요. 서로 커플 스웨터 만들어주면 대박이겠지요.



[최현진] 지금 권투글러브 남자, 여자용 두 켤레씩 신청했어요. 함께 권투 스파링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다이어트도 하려고요. 참고로 제가 헤비급 신랑은 라이트급입니다.



[김민수] 작년 여름 양양에서 처음으로 타 본 서핑보드를 아내와 함께 제대로 배우고 싶네요. 파도의 힘에 순응하는 서핑보드는 제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생방송 중 도착한 여성시대 가족들의 문자 모음입니다.



일러스트 | **조신애**



16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19 남편이 모은 15만 원
23 요리하는 남자
26 이사
30 셀프 도배와 홀로서기
33 인생이 담긴 시
37 욕조가 깨진 이유
40 기억 잃은 엄마를 돌본 아버지
44 누가 효녀일까
48 나를 위해 사는 남편
52 동탄 아빠들의 모임 '동아모'
55 한 달 만에 깨어난 남편
57 막둥이와 함께한 길 위의 인문학
61 나만의 정리 팁

Letter 01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이미애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초등학교 3학년 딸은 남친이 있다. 자기네들끼리 사귄 날짜를 휴대폰 깨톡 창 배경화면에 걸어두었다. 둘 다 하트로. 귀엽다고 해야 할까.

중2 사춘기의 최고봉을 달리는 아들과 달리 유난히 말도 많고 인사성도 바르고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도 큰 딸이 남자친구를 사귄다기에 약간의 걱정이 되었다. 한 번씩 내가 "딸! 남친이랑 손잡았어? 뽀뽀 같은 거 하면 안 돼"하면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 한숨을 쉬곤 했다.

마냥 엄마 껌딱지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고 남친도 있으니 좋으면서도 염려도 되는 게 솔직한 엄마 마음 아닐까.

지난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물었다.

"너흰 사귄다면서 문자나 톡도 별로 안 하고. 그렇다고 주말에 놀이터에서 같이 만나 노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거 맞아?"

"그냥 좋아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꼭 만나고 놀고 해야 사귀는 거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문현답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최대한 머리를 굴려 딸아이에게 돌려 질문을 해보았다.

"딸 네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는 뭐가 다른 거 같아?"

"음~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건 존중과 존경의 차이와 같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딸 설명해줄 수 있어?"

"들어봐! 존중은 친구들 포함 사람들 모두를 싫어하지 않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이게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존경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훌륭하고 인성이 바른 착한 사람을 봤을 때 존경하는 거야. 난 사랑이 존경이라고 생각해."

어린 딸에게 한 방 시원하게 맞은 기분이었다.

어른들의 고정된 생각으로 딸아이가 남친이랑 잘 사귀는지 관심과 사랑이라는 구실로 걱정되어 물었는데 아이의 대답은 의외였고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듯했다. 딸아이에게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말한 존중과 존경 그 이야기 네가 생각한 거야?"

그 물음에 딸은 "아니~ 유튜브 채널에서 봤어."

"그래? 유튜브가 게임이나 먹방 말고 좋은 것도 많이 알려주네."

그날 밤 자는 딸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우리 아들과 딸 인성과 마음가짐이 참 좋은 아이들이다. 내가 참 괜찮은 아이들을 낳았어. 그럼 됐지.



아들의 사춘기가 끝날 때 즈음 딸아이의 사춘기가 날 힘들게 할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겪어야 할 성장통이고 미리 걱정하지 말자. 돈은 땡겨 써도 걱정은 땡기지 말라 했던 아는 언니의 말처럼 믿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난 참 복이 많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랜만에 불평이나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잠에 빠졌다.

Letter 02

남편이 모은 15만 원

전주란 | 경북 김천시 환경로

남편은 오늘 아침에 며칠 전까지 갈까 말까 망설이던 고향 친구 자녀 결혼식에 갔습니다. 가서 식사는 하지 않고 얼굴만 내밀고 온다고 친구들이랑 카풀해서 가는 바람에 정말 오랜만에 나만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호~ 이 얼마 만에 가져보는 나만의 시간인가요.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도 행복하네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조금은 슬프겠지만요.

"나 나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잠이라도 푹 자" 하는 남편 말이 있었지만 이 귀한 시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어 늘 저의 친정같이 포근하고 편안한 여성시대를 노크해 봅니다.

결혼 28년 차 우리 부부. 사실 우리 부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 빼고는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니거든요. 취미생활도 남편에게 맞추다 보니 같이 움직이게 되고 장도 같이 보고요. 유일하게 따로 있을 때는



각자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뿐입니다.

남들이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잉꼬부부이시네요"라고 말하지만 무늬만 잉꼬부부고 우리 부부 28년을 같이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연애 시절 정말 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해주더니 결혼하면서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자식이 생기니 저보다 자식이 우선이고, 이래 하자 하면 저래 하자 하고 의견 충돌이 정말 많았네요. 또 잘 삐지고요. 글 쓰다 보니 남편 흉만 보고 있네요. 오늘은 이게 아닌데 말이죠.

지금 여성시대에 노크한 것은 남편의 15만 원 덕분인데 잠시 제가 정신을 놓아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8주년 되는 날이었답니다. 결혼기념일이면 남편은 제게 해마다 화장품, 속옷, 귀걸이, 팔찌, 현금 기타 등등 선물을 꼭 해주었는데 본인이 직접 사지는 못하고 딸과 아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서 해주었답니다.

이번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인가부터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있는 아들하고 저녁에 남편이 통화하면서 뭐라 뭐라 속닥속닥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여보, 노트북 하나 사줄까?" 이러는데 가끔 문서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낼 거도 아들에게 부탁하는 저인지라 "예~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바로 답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기에 "됐어요. 노트북은 무슨 노트북. 노트북이 얼만데 한두 푼 하남?" 이러며 톡 쏘아 버렸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아들과 속닥속닥하더군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당일 짠 하고 남편이 내민 결혼기념일 선물은 아들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들이 학생 때 쓰던 노트북이 고장 나서 아들은 새 걸 사고 집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여보, 한번 켜 봐" 이러는데 제 입꼬리가 저절로 귀에 걸리더군요.

이제까지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것 중에 제일 짱입니다. 짱! 제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답답하고 기쁘고 슬플 때 여성시대 문을 두드리는 거랍니다. 바로바로 쓱쓱 이렇게 글 쓰고 싶은 일이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답니다.

맞벌이는 하지만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남편 용돈도 많이 주지 못하는데 담뱃값이 비싸다면서 담배도 끊고 자기 옷 한 벌 사주려 해도 "난 됐어. 이거 있잖아"하며 유행 지난 옷을 가리키는 남편이 저 몰래 아들과 속닥속닥해서 용돈 한 푼 두 푼 조금씩 모아 수리비 15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제게 이런 큰 선물을 해주네요. 남들에겐 15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남편에게는 큰돈이랍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새 노트북보다 더 값지고 귀한 선물이죠. 사실 조금 오래된 노트북을 수리하다 보니 키보드로 밝기 조절이 되지 않고 연결선을 꽂아야 화면이 밝아져 불편은 있지만 내겐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쯤이야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내 옆에서 친구처럼 있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이런 큰 선물을 주다니 남편은 제게 산타 같은 존재네요. 산타 남편! 남편의 소중한 15만 원이 들어간 이 노트북 잠재우지 않고 깨워서 유용하게 오래오래 사용해야겠어요. 평소 표현력도 없고 애교도 없는 곰 같은 저이지만 여성시대를 통해서 산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보, 재작년에는 당신이 사고를 당해 입원도 하고 지금도 그리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가득하고 내게 정말 소중한 당신이 더욱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물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는 더욱더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요. 사랑해요. 여보."

Letter 03

요리하는 남자

박상범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4길

저는 갓 스물을 넘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성의 남편으로 살기 위해 무작정 자동차 핸들을 잡으면서 여성시대 왕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30년 전 철없는 아버지였던 저를 지금의 노련한 50대 가장으로 키워준 스승이 여성시대라고요. 췌장암 수술을 했을 때도 여성시대는 저를 수없이 위로하고 웃기고 감동시키며 저를 일으켜 세웠지요. 머리 숙이는 법과 남을 배려하는 법,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 참 많은 것을 여성시대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요리연구가 우영희 선생님께서 출연하신 '요리보고 조리보고' 코너는 가족에게 아무것도 표현할 줄 몰랐던 철부지 가장에게 소통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종일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녔고 아내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딸에게

중2병이 찾아왔습니다. 착하고 모범적이고 밝은 딸이 반항하는 법은 '침묵'이었습니다. 물어도 대답이 없고 웃겨도 웃지 않는 순둥이의 중2병이 걱정되어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시대 '요리보고 조리보고' 게시판에 나온 레시피를 훑어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라면 물도 맞출 줄 모르던 저에게 요리는 정말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에이~ 안 되겠어! 내가 무슨 요리를…' 하며 포기하려는데 또다시 찾아온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 우영희 선생님과 양희은 선생님 목소리로 '요리를 못하겠다고? 이럼 이건 어때? 이건 쉬운데…'라고 하는 듯 쉬운 레시피가 라디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햄치즈 그라탕'이었습니다. 후추와 소금으로 양파와 피망, 햄을 볶아 용기에 올리고 그 위에 시판용 스파게티 소스를 덮고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 치즈가 녹을 만큼만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돌리라고 했어요.

늦은 밤, 저는 딸을 위한 '햄치즈 그라탕'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아빠! 이거 진짜 아빠가 한 거야? 사 온 거 아니야?"

열흘 넘게 침묵시위를 하던 중2병 딸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짜샤~ 아빠가 안 해서 그렇지 뭐든 하면 다 잘하는 사람이야!"

"에이, 거짓말! 사 온 거지? 라면도 나보다 못 끓이면서 무슨?"

포크에 햄과 양파, 피망을 꽂아 치즈로 돌돌 말아 입으로 가져가는 딸의 밝은 표정에서 중2병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딸, 아빠가 요리를 배울 참인데 엄마도 바쁘니까 주말마다 아빠 요리 평가해줄래? 솔직히만 말해주면 돼."

그 후 주말마다 요리했습니다. 금요일 '요리보고 조리보고' 코너에 나온 레시피 그대로 요리하고, 중2 딸과 초등학생 아들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딸은 양상추샐러드국수와 메밀막국수를 특히 좋아했고, 아내는 봄동 겉절이와 어리굴젓, 아들은 햄버그스테이크와 등갈비 폭립을 좋아했는데 그러는 사이 제 요리 실력도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제 요리가 차려진 밥상 앞은 늘 화목했고 사랑이 넘쳐 요리 레시피를 더 열심히 모으며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난 지금은 해마다 김장을 하고 가족 생일상을 차려낼 만큼 잘하게 되었죠. 제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여러 해 전부터는 김장하는 날이면 지인들이 우리 집으로 모여들어 도와주고 김치를 얻어가는 통에 70여 포기나 김장을 하게 됐지만 베풀게 되니 이 또한 행복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는 제가 모든 남성의 공공의 적이 된다는 점. 이번 겨울에는 가을무와 배추로 보쌈김치를 담갔습니다. 무를 조금 굵게 채 썰어 소금과 물엿에 오독하게 절이고 고춧가루색을 입힌 뒤 미나리와 쪽파, 새우젓, 육수 풀, 마늘, 생강, 밤, 잣, 땅콩을 넣어 갖은양념에 무쳐낸 뒤 절인 배추와 목살, 삼겹살 수육을 삶아 상을 차려냈지요.

"와~ 역대급 보쌈이에요. 아버지 실력은 진짜 아까워요."

어느덧 성인이 된 아들의 폭풍 감탄을 듣는데 아내 휴대폰에는 먹고 싶다는 지인들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아내가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오래전 여성시대 요리보고 조리보고 코너에서 시작된 저의 요리는 사랑이고 소통이고 육아법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외로운 아버지와 남편들에게 요리를 배우라고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요리를 통해 흐르는 정이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보장합니다. 오래전 은사님께 글을 올리는 제자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Letter 04

이사

강진석 | 서울 구로구 연동로길

마흔여덟 살, 결혼 18년 차 가장이고 서울 변두리에서 도예공방을 운영하며 아내와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2003년에 결혼하면서 8천만 원을 들여 경기도 부천 쪽에 19평짜리 저층 아파트를 마련해 16년간 쭉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갑작스럽게 공방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집주인이 리모델링한다고 나가 달라고 하더군요. 새 공방 자리를 얻어준 부동산 실장님의 조언대로 정든 낡은 아파트는 수리한 후에 처분했고 서울 구로구 쪽에 공방과 함께 35평 새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작년 10월에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나가 달라고 하더군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사용도 못 해보고 부랴부랴 이사 갈 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2년간 주변 전세값이 말도 안 되게 심각하게 올라있더군요.

거의 매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직접 부동산에 찾아가 집을 찾다 보니 공방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불안정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에 모아둔 돈을 더하고 대출도 더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차라리 도심 외곽으로 나가서 공방이 딸린 집을 지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역시나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봐도 3가지 선택지뿐이었습니다. 2억 이상 빚을 내어서 바로 옆 단지 전세로 이사가거나 빚을 조금 덜 내서 공방 근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를 얻거나 생각도 안 해 본 월세 집으로 가는 것. 어차피 전세를 살아도 은행에 대출이자를 내야 하니 월세를 살면서 전세보증금으로 쓰일 돈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었는데 투자가 대박 나서 부자가 되는 상상과 투자가 쪽박 나서 빈곤해지는 상상을 번갈아 하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지 말지 싶어서 세 번째 월세 선택지는 바로 접었습니다.

가족들과 수차례 상의하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일부는 전세보증금에 보태고 일부는 대한민국 대표 우량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공방 일만 열심히 하고 투자는 모른 채 살아온 것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면서 동시에 너무 위험부담이 큰 투자는 피하자고 내린 중간 정도의 접점이었지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오래된 전세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보니 이번엔 이사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살던 집 주인은 조만간 은행 대출이 제한될까 봐 불안하니까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이 끝나는 10월에 저를 내보내고 싶어 했고, 제가 이사 가려는 집은 11월에나 입주가 가능한 상황. 다시 말해 우리 가족은 한 달 남짓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두 배로 들고 한 달 간 호

텔비에 식비에 생활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지요. 말이 호텔이지 시설이 낡은 여관 비슷한 곳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제 차에는 한 달 넘게 호텔에서 사용할 물건들이 가득 실렸습니다. 아내와 딸은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잤는데 호텔 단칸방에서 지내니 가족이 좀 더 돈독해지는 면은 분명 있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전세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또 한 번 놀란 것은 새로 들어갈 전셋집의 집주인이 저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 스물여덟 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갭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들었지만 저보다 스무 살이나 어린 친구도 집을 장만했는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기에 집도 없는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신용점수를 돌렸더니 제가 무직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아내보다 대출이자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2007년 처음 공방을 시작할 때 지인이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 공방 사업자등록을 아내 이름으로 해두라는 조언에 따른 조치였는데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써버린 상황. 저는 미안하지만 계약서를 좀 변경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했고 양쪽 부동산 관계자와 대전에 사는 집주인이 다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서울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잔금 치르고, 집 열쇠 받아서 이사하니 왠지 모르게 착잡하더군요. 대충 짐 정리를 마치고 보일러를 켰는데 작동이 되지 않더군요. 하필 밤새 영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장 같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가 터져 나와서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묵었던 호텔로 밤 8시에 온 식구가 다시 짐을 싸서 이동해야만 했지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집주인이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를 통해 고장 난 보일러를 봐주겠다고 왔는데 약 10분가량 여기저기 둘러보고 만지니까 거짓말처럼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가스 밸브가 잠겨 있었다고 하더군요. 문과 출신에 기계치인 제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호텔로 돌아간 게 너무 무안하고 부끄럽고 화도 나고 창피하고 암튼 그랬습니다.

그동안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빚 없는 걸 자랑으로 여기며 방심하며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투자 공부도 해야겠다고 느꼈고, 전에 없던 대출이자 부담에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지 내릴지, 2년 후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지금과 같다면 저는 무리하게 빚을 내서까지 집을 소유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아파트 청약엔 꾸준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2~3년 전에도 공공아파트 35평 분양가가 4억이 넘었던 걸로 아는데 과거 공시지가 1억 원 정도의 주택을 소유했던 사람은 청약 대상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아파트 청약 자격이 없다는 것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집 없는 '중년'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세요.

Letter 05

셀프 도배와 홀로서기

김순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삼십 년 만에 다시 여성시대를 노크해봅니다. 삼십 년 전 당시 카풀로 출근하던 광경을 묘사한 글로 여성시대와 인연을 맺었었죠.

얼마 전 집에 도배를 좀 해보려고 알아보니 기술자들의 하루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전 짝꿍이던 남편이 소풍을 가버린 뒤라 이젠 홀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68세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겁니다.

밤마다 자리에 누워 유튜브를 통해 살림 고수들의 집 안 꾸미기를 보며 도배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 애썼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는 형님이 이전에 도배를 배워서 몇 번 따라다닌 경험이 있다고 하시며 돈 들이지 말고 우리 둘이 함께해 보자 하시는 겁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혼자 작은 방 곰팡이가 핀 벽면을 테스트 삼아 뜯어보니 난방을 위해 여러 겹 붙여 놓은 스티로폼 위로 20여 년 전 초배지가 삭아서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난감했지만 "그래도 이젠 내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이 캔 두 잇.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여러 차례 다짐하고 마스크, 칼, 락스, 키친타월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손으로 뜯다 보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다시 형님에게 전화로 자문을 구하니 칼집을 낸 후 뜯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한결 쉬웠습니다.

다음날 멀리서 사시는 그 형님이 아픈 무릎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심하고 안타까웠는지 아침 일찍 와주셨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같이 든든하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도배지를 바르기 전에 우선 곰팡이 퇴치가 급선무였기에 유튜브에서 본대로 락스를 분무기로 뿌리고 키친타월을 곰팡이가 있는 벽에 붙이니 점점 없어지더군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음은 도배지 사기. 사이즈를 잰 후 도배지 구입을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20개들이 한 박스를 사야 배달이 된다고 하는데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끌고 몇 차례 3층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했더니 무릎에서 '나 좀 살려줘~' 아우성이 새어 나왔습니다. '휴우~ 힘들다. 이럴 땐 정말 남자의 손이 필요하네.'

짐을 나르다 물을 마시려고 식탁 위 물컵을 드는 순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손녀 백일 때 찍은 가족사진 속 남편이었습니다. 온화한 모습의 남편을 보는 순간 곧장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당신이 있을 땐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한 번도 나에게 힘들다고 한 적 없이 그저 '난 괜찮아. 나가서 놀다

와'하던 당신이 생각나네요."

넓적하고 듬직했던 그의 손길이 눈물겹도록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떠난 사람을 소환할 수도 없고요.

도배지와 장판을 들고 3층까지 오르내리는 건 대략 난감 그 자체였습니다. 몇 개씩 들고 오르기를 서너 번, 도배지는 올렸으나 마지막 남은 장판은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 아래층 계단 옆에 낙심하고 앉아 행여 누구라도 지나가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50대로 보이는 2층 남자가 '왜?'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에 이때다 싶어 이 걸 3층으로 올려야 하는 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진심 어린 눈빛을 발사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남자의 힘이 새삼 부러워지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갔습니다.

사흘에 걸쳐서 작은방 도배와 장판 교체를 해냈습니다. 남은 방 2개와 거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전문 도배사 한 명과 보조기사로 두 사위를 끌어들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까스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나니 내가 살던 집이 아니고 새로 입주한 것 같아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셀프, 요즘 어딜 가든 셀프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셀프가 아니면 햄버거 하나 사 먹기도 힘든 시대지만 도배만은 셀프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도배는 도배사에게 부탁합시다!

1인 가구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홀로서기는 많은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 인생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나는 미니멀한 살림살이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내 마음은 어떻게 홀로서기에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인 오늘이었습니다.

Letter 06

인생이 담긴 시

유연숙 | 경북 안동시 전거리

며칠 전 안동역에 전시되고 있는 시화전에 다녀왔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워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고 색칠하여 정성껏 만드신 시화 작품이라 감동은 몇 배 더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시느라 뭉툭해진 손으로 연필을 잡고 한 자 한 자 써 내려갔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작품 위에 언뜻언뜻 비쳐졌습니다.

맞춤법이 틀리면 어떻고 띄어쓰기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한 편 한 편 작품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서 새록새록 정이 솟아나더군요. 맞춤법이 틀린 글자가 오히려 정겹게 느껴지고, 띄어쓰기가 안 된 글자인데도 아무 불편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쓰신 작품은 단순히 자음과 모음을 합친 글자를 적은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구구절절한 피맺힌 마음, 한 맺힌 마음을 적은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한

감동과 전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 감히 짐작해 봅니다.

내용을 보니 작품마다 구구절절했습니다. 아니 위트 있게 표현된 작품을 읽을 땐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옆에 서서 작품을 읽던 연세 많으신 한 어르신은 "고마 딱 내 얘기네. 내사마 눈물이 나뿌려 더는 몬 읽겠다" 하시더군요.

"잘 쓴 시는 어려운 시가 아니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작품이다"라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어르신들이 쓰신 이 시들은 그런 면에서 전부 수작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을 들고나는 승객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고 눈물을 자아내게 했으니 말입니다.

구십 세 되신 어르신이 쓰신 작품도 있더라고요.

〈구십 평상 글을 몰라 답답했던 내 마음… 삐뚤빼뚤 글자를 마당에서 따라 써봐도 내 손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이할노…〉

'어이 할노'라는 작품인데 참 대단하시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배우고 싶은 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구십 연세에 한글을 배우게 되셨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짠해집니다. 한 작품 한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이 어르신들을 시인이라 부르고 싶어졌습니다.

시의 주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시의 주제가 되고 글감이 되니 이미 어르신들은 베테랑 시인으로도 손색이 없으셨습니다.

밭에서 잡초를 뽑다가 느낀 감정, 주방의 양념통에 이름표를 붙이면서 든 생각, 며느리에게 참기름을 나누어 주다가 든 마음, 아픈 자식 걱정에 애타는 부모 마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시가 된 전시였습니다. 시가 곧 어르신들의 삶이고 어르신들의 삶이 곧 시이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우게 된 동기, 한글을 배우고 나서 생긴 좋은 점 등등 작품 속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어찌 어르신들의 잘못만이겠습니까? 여자라서, 가난해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이유야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문맹은 시대적 배경이 한몫한 셈이지요. 그런 연유로 어르신들의 뜨거운 눈물이 배어 있어 작품이 모두 촉촉하고 뭉클합니다.

여성시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작품 몇 편 소개해 봅니다.

'잡초와 나'라는 작품입니다.

〈땅을 꼭 잡고 있는 너를 보내고 슬프지 않은 것은 금방 또다시 오기 때문이지 우리 인생은 한번 가면 또다시 못 와….〉

'동생의 걸음마'라는 작품입니다.

〈동생 걸음마 하면 학교 보내준다 했는데 첫째 동생 걸음마 하면 또 동생 낳고 5명 동생들 걸음마 하는 동안… 많이 울었다… 공부하다 잠깐 졸았는데 엄마가 또 동생 낳는 꿈을 꿔 깜짝 놀라 깨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다.〉

'편지'라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장민호에게 편지 쓰고 자빠서 한글 공부 열심히 한다.〉

'나의 인생'이란 작품입니다.

〈애는 놓는 데로 딸 계집아이 가스나 지지바를 놓고 아들 낳았네…〉

마지막으로 '자신감'이란 작품입니다.

〈주소를 쓰라고 햇다 이재는 자신감 있게 주소와 이름 쓴다… 나도 쓴수 잇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낫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마는 어르신들의 작품은 더 절실하게 다가와 작품을 읽는 내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읽는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구십이 넘어서도 배우고 싶을 만큼 한이 서린 것이 한글을 깨우치는 것이란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리기도 했습니다.

한평생을 아내와 어머니란 이름표를 달고 살아오신 고생 많으신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이제껏 아내의 시간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시간으로 살아오신 만큼 작게나마 보상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이제라도 조금 늦었더라도 더 늦기 전에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많이많이 할애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한평생 응어리져 있던 삶이 그리고 생각이 세상 밖으로 나와 영롱한 빛을 발하는 불빛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영하로 내려간 기온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감동이 가득 찬 가슴엔 훈풍이 불어 봄날같이 따뜻했습니다.



Letter 07

욕조가 깨진 이유

유혜정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저는 상가건물 3층을 주택으로 개조한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1·2층은 상가, 3층은 가정집으로 개조한 곳이에요. 처음에는 잘 지었겠지만 저희가 왔을 때는 낡아서 소소한 것들은 저희가 고치고, 큰일은 주인과 의논했습니다. 그 속에서 갑과 을의 차이를 느껴 여성시대에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재작년 1월,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검사하러 왔습니다. 기계로 보일러와 배관을 살폈는데 이상 없고, 깨진 욕조 부분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며 3일 정도 사용하지 않으면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 했어요.

욕조를 쓰지 말라니 샤워기를 꺼낸 후 샤워커튼을 치고, 그래도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욕조 위에 수건과 신문지를 깔아 물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한 손으로 샤워하는 게 불편하다

고 아이들이 투덜거렸지만 모두의 편의를 위해 며칠만 참으라며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찾아온 집주인은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겨울 동안 욕조를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가 1월 초인데 겨우내 두세 달을 참아야 한다는 말에 황당해서 겨우내 한 손으로 샤워해야 하냐 했더니 오히려 저를 야단칩니다.

"왜 한 손으로 샤워를 못 합니까? 샤워기 꺼내서 물 뿌리고 샤워기 세면대에 내려놓고 비누칠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헐! 이런 경우엔 '불편하겠지만 양해해 달라,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욕조는 샤워기 쪽 물 빠지는 곳에 금이 갔는데 반대쪽은 주저앉아서 우리가 실리콘으로 막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깼다면 금 간 곳이 먼저 주저앉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욕조가 깨진 건 저희 탓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상관없고, 암튼 올라갔으니 욕조가 깨지지 왜 깨집니까?"

"한쪽이 주저앉을 정도로 낡았으니까 깨진 거죠."

"그냥 깨질 리가 있습니까? 올라갔으니까 깨지지!"

"저희가 100kg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서서 샤워만 하는데 깨질 리가 없지요!"

"그럼 누가 깼습니까?"

"낡았으니까 깨진 거죠."

"올라갔으니 깨지지 왜 깨집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깼습니까?"

끝없이 도돌이표를 하다가 급기야 "집 빼!"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욕조에 금 갔을 때 저희가 왜 바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요? 이사 온 첫해 봄에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1960년대도 아니고 바닥에 물

그릇을 서너 개씩 받쳐 놓았는데 집주인은 '결로'라며 그냥 참으라 했어요. 보일러가 삭아서 기사가 더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반반씩 부담하자더군요.

작년에도 아래층에 물이 샌다 해서 원인 추적을 했는데 집수리하면서 수도배관 연결을 꽉 조이지 않아서라고 연결 부위인 마루 한복판을 깨서 수도관을 연결하고는 그냥 갔어요. 물 새는 곳을 찾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마루는 우리 보고 알아서 수리하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하질 않으니 웬만한 건 저희가 해결했지요.

처음 이사할 때는 벽 구석이 썩어 있어 석고보드 사다 새로 붙였고, 새 전구를 끼어도 깜빡이는 등도 저희가 새 걸로 갈았고, 싱크대 수도가 터져 물이 쏟아질 때도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러니 욕조도 저희가 실리콘 사다 붙이고 그냥 버티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욕조 위에 서서 샤워해서 욕조 깨뜨렸다고 몰아가네요. 저희가 한 번이라도 욕조 가득 물 받아서 목욕했거나 욕조 안에 김장배추라도 절였으면 억울하지 않지요. 저희 잘못은 욕조가 깨졌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실리콘 사다 수리한 죄뿐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나쁜 분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보일러 비용도 부담했고, 마루 깨진 것도 나중에 청구서 내니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받을 것을 이렇게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받으려니 저희는 스트레스입니다.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해준다면 모두가 감정적으로 편안할 텐데 각자 입장이 다르니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올해는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진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Letter 08

기억 잃은 엄마를 돌본 아버지

이혜림 | 경북 경산시 압량면

문자메시지가 서툰 아빠가 여성시대에 문자 보내도 채택 안 된다고 지나가며 하신 말이 생각나고, 또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틀어놓은 여성시대를 들어온 20년 차 경력인지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빠는 사과가 유명한 경북 청송에서 40년간 벽돌 조적 일을 하신 기술자입니다. 근 25년 동안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오신 아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 아빠는 저희 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제 나이 36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엄마가 다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밤, 엄마가 많이 다쳤다고 동생들을 잘 보라며 아빠가 급히 나가셨습니다. 전화 통화로 밥 잘 챙겨 먹으라 하시고 며칠 후 돌아오신 아빠가 밤에 저를 부르시더니 엄마가 머리를 많이 다쳐서 기억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빠의 말에 이게 다 아빠 탓이라며 엄마 돌려놓으라고 울고불고하며 소리쳤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매일 샌드위치, 햄버거, 맛탕 등 맛있는 간식을 해주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중학생이라 견딘다고 하지만 어린 동생들은 매일 울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아빠는 저희 3남매를 엄마가 있는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엄마는 저희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그 모습에 병원 대기실 동생들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을 기억 못 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병을 고치려고 서울, 대구, 부산 등 유명한 병원을 찾아 아빠는 엄마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경북 청송인 시골에서 서울 병원에 가는 날에는 아빠는 항상 만두, 돈가스, 햄, 계란 등을 냉장고에 채워주고 동생들이랑 밥 잘 해 먹으라며 어떨 때는 1박 2일, 또 어떤 때는 2박 3일 다녀오셨습니다.

병원을 전전해도 나아지지 않는 엄마의 기억. 평생 기억장애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여기가 어딘지 몰라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엄마를 잡으려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아빠는 현장에 나갈 때마다 엄마를 트럭에 태우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억 잃은 엄마라는 소문이 나면서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기도 하고, 엄마가 곁에 있지만 엄마가 없는 아이들로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한 시선들로 삐뚤어진 막냇동생은 매일같이 친구들과 싸워 아빠는 학교로 경찰서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아빠는 자퇴한 막냇동생

을 위해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동생을 이끌고 1시간 거리 방송통신고등학교를 3년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2004년 제가 수능 보는 날 시골에는 수험장이 없어서 새벽 일찍 아빠 트럭을 타고 안동으로 나섰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날, 시골길을 지나가다 과수원에서 나오는 트럭이 아빠 차를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앞부분이 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이 끼여서 아빠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에 탄 엄마는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반신이 끼인 아빠는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저를 수능장으로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하며 수능장에 도착해 휴대폰을 반납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은 채 시험을 보고, 점심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었을 때 아빠가 싸준 밥과 김치뿐인 도시락을 보고 또 한 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시험을 끝내고 나왔을 때, 다리를 쩔뚝거리는 아빠와 엄마가 당신들은 괜찮다며 시험 잘 봤냐고 고생했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픈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책 사달라고 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아빠가 미안해할까 봐 말도 못 했고, 비 오는 날 구멍 난 신발로 물이 들어와도 집에 와서 말리고 다음 날 또 비 오는 날 신고 학교 갔던 날이 생각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구나,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지 세상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동안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빠는 정신이 없는 엄마를 살피랴, 사고치고 아픈 3남매 키우랴, 아빠 형제들이 살펴보지 않는 홀로 계신 할아버지 보살피랴, 현장에 일하러 다니랴,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야 아빠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3남매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지냈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빠는 엄마를 매일 데리고 다니며 저희를 어떻게 키우고 살았을까, 남들은 엄마를 생각하면 목이 멘다지만 저는 아빠를 생각하면 목이 멥니다.

제 밑에 여동생 남동생도 작년에 시집 장가를 다 보내면서 아빠는 이제 본인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며 이제 엄마랑 낚시 다니며 편히 살겠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기억이 없어 스스로 힘들다고 하며 밥하는 법도 이제 겨우 기억한 엄마, 전력 질주하며 자식을 키워내며 버티신 아빠.

"아빠~ 진짜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온 엄마 아빠라는 걸 우리 자식들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건강 챙기면서 현장일 좀 적게 하고 편히 사세요. 100세 시대라서 진짜 100세까지 살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진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 엄마가 있지만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채워주려 많이 노력하셨고, 그 덕에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힘이 생겼잖아! 버텨준 아빠가 있어서 정말 감사해! 힘들어도 20여 년간 매일매일 엄마랑 함께 다녀줘서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명용, 김찬노 씨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사랑해♥"

Letter 09

누가 효녀일까

정수정 |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로

일곱 살 많은 언니와 저는 사이가 참 좋습니다. 언니는 제가 초등학생일 때는 고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일 때는 직장을 다녔지요. 터울이 좀 있다 보니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을 갈 때 언니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옷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언니는 소풍날 김밥을 못 싸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새 옷을 입은 친구들 사이에서 낡고 헌 옷을 입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던 적도 많아서 동생만은 기죽지 말라고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이제 언니 나이 쉰둘, 저는 마흔다섯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고 한창 바쁠 때는 전화 통화만 자주 했지만 제가 언니네 집 근처로 이사 가면서 수시로 집을 오가며 더욱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가까이 살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언니가 제 살림 사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도 좀 하고 제가 친정에서 가져온 반찬이나 채소를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시는데 손이 좀 크십니다. 친정집 들를 때마다 자식들 생각해서 바리바리 한가득 싸주는데 저는 주시는 대로 다 받아오고 언니는 필요한 만큼만 받아옵니다. 저는 엄마가 주시는 것이 많아서 집에서 다 못 먹을 거 알면서도 엄마가 주고 싶어 하시니 받아옵니다. 감자를 우리 집 식구가 셋이니 조금만 줘도 되는데 한 포대를 주십니다. 열심히 먹어도 결국 감자 싹이 나서 버린 적도 있고요. 배추도 한 통이면 충분한데 몇 통을 주시니 결국 썩혀서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배추 한 통은 잘 먹었으니 됐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우리 집 살림살이 사정을 알게 되고 엄마한테 다이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집에서는 밥을 잘 안 해 먹나? 밥식혜 준거 맛이 없더나? 잘 안 먹는다 캄서. 감자랑 배추도 잘 안 먹는다고?"

"아니, 잘 먹는데 왜?"

아! 언니가 무슨 말을 했구나 짐작되더군요. 밥식혜라고 쌀밥에 오징어채와 고춧가루를 넣어 삭힌 경상도 음식이 있는데 남편도 잘 안 먹고 저도 잘 안 먹혀서 보관만 하다가 냉장고 정리하면서 버리는 것을 언니가 봐버렸습니다.

"너는 엄마가 반찬 주면 다 먹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싸가지고 오니? 세 식구에 그렇게 많은 밥식혜를 가져올 때부터 버릴 거 예상되잖아. 엄마는 쉬지도 못하고 맨날 반찬 만들어준다고 하고 밭에 가서 일만 하시잖아."

"언니는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조금만 달라고 해도 주시는 거 어

떡해? 촌에서 나는 거 엄마도 많아서 처치 곤란이셔. 나라도 가져오니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촌에서 남아서 버리나 내가 좀 먹고 남은 거 버리나 그게 그거야. 그리고 반찬 필요 없다고 안 가져가면 섭섭해하셔. 가져오면 엄마가 더 좋아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엄마가 안쓰러운 언니는 저를 나무랐고 저는 또 제 생각이 맞는다고 언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주신 거 다 너무 잘 먹고 있다, 언니가 괜한 말한 거라고 하며 엄마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장 날이었습니다. 엄마를 도우러 저와 언니가 친정에 갔고 셋이 김장을 하다가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와 언니는 다시 언쟁이 일었습니다.

"너는 김치도 잘 안 먹으면서 엄마한테 왜 김치 잘 먹는다고 해서 이 고생을 시키니? 나는 작년 김치도 아직 두 통이나 있다고. 너희 집 김치냉장고에 작년 김치 남은 거 봤는데 이렇게 김치 많이 해야 하니?"

"언니, 며칠 전에 엄마한테서 우리 집 김치 맛없냐고 전화 왔더라. 올해 김장 안 해도 되냐 하시더라. 언니가 작년 김치도 남았고 김치 별로 안 먹어진다고 했다며? 엄마 목소리가 얼마나 기운 없으시던지, 내가 엄마 김치 진짜 맛있고 나는 김치 진짜 많이 먹는다고 했어. 내가 엄마 제대로 위하는 거라고!"

"너는 그게 엄마를 위하는 거라고? 이 절인 배추들 봐라. 이거 밭에서 뽑아서 씻고 자르고 절이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엄마 기분 좋게 한다고 엄마 고생시키니? 딱 잘라서 김치 안 먹으니 김장 조금만 해도 된다고 왜 말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엄마 제대로 위하는 거야!"



김장을 담그면서 서로 그렇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저한테 정말 고마운 언니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대든 거 같아 사과의 문자를 보내고 화해했습니다.

아아~ 그런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 말이 맞는지. 엄마한테 조금만 달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바리바리 싸주시니 저는 제가 엄마를 바꿀 수 없으니 제가 바뀌기로 한 거거든요. 엄마 기분 좋게 맞춰 드리기로 하면서 많이 주시는 대로 받아옵니다. 언니 말대로 필요 없다고 안 받아오면 엄마가 고생하시는 일도 줄고 음식 쓰레기 버릴 일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섭섭해하는 엄마를 떠올리니 그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주시는 반찬거리를 안 받아오는 언니와 잘 받아와서 몰래 버리는 저 중에 누가 효녀일까요?

Letter 10

나를 위해 사는 남편

권혜정 |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나이는 47세. 남편과 운동하다가 갑자기 오한과 구토가 나며 쓰러졌는데 쓰러진 후에는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일반실로 옮겨졌다고 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나와 비슷한 시기에 수술한 여자도 중환자실에 함께 들어가서 남편은 그 여자 남편과 말벗도 하고 서로 의지도 되었단다. 하지만 그 여자는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났단다. 그 후 남편은 혼자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면회 시간이 되면 그녀의 남편과 얘기하며 같이 희망의 불씨를 붙였는데 그녀가 그렇게 멀리 떠나고, 그 보호자도 볼 수 없게 되고, 남편만 남아서 병실을 지켜야 하니 겁도 나고 걱정과 근심의 시간을 보냈단다.

일반실로 옮겨진 일도 나는 희미한 기억만 있을 뿐 확실한 기억이 없다. 왠지 며칠 있으면 퇴원해서 나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건 '그

러고 싶다'는 나만의 생각이지 현실은 달랐다. 손도 발도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면회하러 온 사람들 표정이 좋지 않았다. '너무 안됐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못 걷는구나' 생각하니 별로 살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삶의 의욕도 사라졌다. 그러면서 누구에게인지 모르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었다. '내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온갖 원망과 억울함이 나를 눈물짓게 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밉고,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어졌다. 당시 나는 다인 병실에 있었는데 앞쪽과 옆쪽 커튼을 치고 병실 사람들과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 오면 그제야 병원을 한 바퀴 도는 산책만 했다. 남편은 나를 걷게 하기 위해 근육이 다 빠진 나를 병실 복도로 데리고 나가 '서 있는' 연습부터 시켰다.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세워놓으면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나인데 자기 두 팔에 내 엉덩이를 얹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켰다. 나중에는 남편 팔 인대가 늘어날 정도였다. 근육이 없는 나는 마치 문어처럼 흐느적거렸는데 그런 나에게 근육을 만들어주려 무던히 애썼다.

본격적인 재활을 위해 재활병원으로 옮겼다. 남편은 퇴근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 일과가 끝난 치료실에서 나머지 재활을 시키며 나의 근육을 키워주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느라 치과에 다녀온 남편이 "나 봐라~" 하면서 웃는데 원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나는 가슴이 미어지고 시리고 저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부부의 사랑이 이런 것일까? 알 수 없는 감동과 미안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거부감,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 시간까지 남편은 얼

마나 고생했을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내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얼마나 많았을까. 남편이 나에게만 힘과 정성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눈물을 삼키며 애써 웃었으나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었다. 배는 얼마나 고팠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말 못 하고 혼자 끙끙 아팠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쓰렸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친정어머니는 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는 아마 한동안 찾아오지 않는 막내딸을 서운해하며 먼 길을 가셨을 것이다. 막내딸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다는 사실은 그 누구한테도 듣지 못하셨다. 남편이 나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중에야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딸은 기숙사 있는 학교에 들어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해줄 때는 잠시 엄마가 되어 다른 엄마들과 간식을 준비하고, 내가 자궁적출 수술을 할 때는 틈틈이 간호도 하고,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큰며느리인 내 자리를 메워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내 자리를 대신해서 한 일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지금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13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집은 명절도 생일도 기념일도 크리스마스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운동시켜 주고, 나는 걷는 연습을 한다. 사지마비였던 내가 혼자 조금씩 걸을 수 있는 것은 다 남편의 노력과 노고의 힘이다.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는가? 어느 집이나 조금씩 맞춰가며 양보하며 이해하며 산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왔을 때도 끝까지 노력해준 남편이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남편이 고맙고, 감사를 넘어 존경한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 지금 와 생각해보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쌓았고, 그런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기막힌 처지에 놓였을 때 남편은 너무도 아름답고 고귀하게 나의 지팡이가 되어 준 것이었다.

남편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되어 버렸다.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앞만 보는 평행선의 삶이 아니라 손잡고 같이 행복을 향해 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나를 돌보는 남편의 사랑은 든든한 바위 같고 큰 산 같다. 남편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푸근해진다. 우리 남편,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Letter 11

동탄 아빠들의 모임 '동아모'

김병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

여러분 쌀뤼 쌀뤼~ 저는 동탄2신도시에 사는 '동아모' 방장 '쌀뤼' 김병수입니다. '쌀뤼'는 프랑스어로 '안녕'이란 뜻이에요. 제가 프랑스에 살다가 한국에 온 지 1년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 자녀 이야기는 엄마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수찬이와 수연이 남매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가 생각나요. 그 행복감….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어봐야 20년쯤? 특히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게 도와줄 수 있는지 순간순간이 참 어려웠어요. 이번 생에 '아빠'라는 첫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연습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자리가 아빠더군요. 아이를 키우면서 고민과 선택 장애는 계속 되니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 최전방에 서있는 아빠들에게도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 건강한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점에 가도 엄마들 책은 많은데 아빠들 책은 많지 않더라고요. 맘카페는 많은데 아빠 카페는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장이 되어 '동탄 아빠 모임, 동아모'를 만들었어요.

진입장벽이 높고 희소성이 있는 특별한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처음부터 소수로 시작했어요. 모임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의 쪽지가 넘쳤지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 회원 수에 제한을 두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완전 대박!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해서 육아, 교육, 나들이 등에서 정보를 나눕니다. 그리고 Q&A도 활발해요. 자녀들이 0세부터 고3까지 있기 때문에 기저귀 얘기부터 고3 입시,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 문제까지 다양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지요.

얼마 전에 100일을 맞이했는데 이곳에서는 아빠들의 추억 얘기, 자녀에 대한 사랑 듬뿍 담긴 얘기, 자녀 키우며 겪는 고민까지 매일매일 이야기 파티가 열려요. 같이 마라톤도 하고, 풋살도 하고, 탁구도 치고, 자녀와 함께 파티룸에서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국어, 산수, 미술, 체육 시간도 가져봤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언어 공부, 아빠들의 턱걸이 챌린지, 크리스마스에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아이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교환하기' 이벤트도 진행했어요. 세컨하우스 벙개, 자녀들과 함께 뮤지컬 공연 보기, 베이킹 클래스도 하고, 아이들도 여기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이 모든 게 무료이고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아빠와의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가족에게 선물해주는 일이 중요하고, 남자들만의 문화가 아닌 가족 중심의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아빠도 있고,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는 자녀와 함께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는 분도 있고, 멋진 아빠들이 많으니 반성도 많이 하게 되죠. 동아모는 함께 만들어 가는 모임이라 퇴근길 음악 담당도 있고, 미세먼지 담당도 있고, 커피에 진심인 분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체력 담당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재능이 꽃을 피워요.

저희 동아모 회원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회원들 글을 보며 다른 아빠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빵 터지는 즐거움도 느낍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동아모 패밀리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도 상상해 봐요. 동아모 복합문화공간, 아지트를 마련할 날도 꿈꾸어 봐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아빠라는 공통점으로 자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다른 집 자녀도 존중할 줄 아는 이 따뜻한 모임이 뿌리가 깊은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많은 회원이 동아모 100일을 축하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고 결혼할 그날에도 함께 축하해주고 그 후까지 함께해요. 특히 운영진을 맡고 계신 구어님, 한쓰님, 충쓰님, 에보님께 감사드려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동아모' 아빠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Letter 12

한 달 만에 깨어난 남편

송보민 | 경남 양산시 양주로

4살 된 딸아이와 함께 사는 서른 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들처럼 육아와의 전쟁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데 2021년 3월, 지독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 32살, 그 젊은 나이에 변이형 협심과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쓰러져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자가 호흡도 못 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한 달 동안 면회도 못 하고 중환자실 벽만 보며 엉엉 울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나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딸 사진을 보이자 평소 부르는 애칭으로 불렀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저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이 늦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의사 생활 하면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정상적으로 나가는 환자는 처음이라며 기적이

라고 하셨어요.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간절했고,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기에 남편 또한 먼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제 삶도 180도 달라졌고 일상의 작은 일도 다 소중해졌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거의 1년 가까이 기억이 없어서 아이가 아직 12개월인 줄 알다가 뛰어다니고 말도 잘하는 걸 보며 놀라기도 했고, 남편의 인생 속 기억 몇 부분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족, 친구,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기억 조각을 찾아가고 있고, 추억의 장소에 가서 기억해 내는 등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살았으니 됐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지요.

남편이 꽤 오래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몸무게도 20kg 가까이 빠지고 근육도 많이 빠져서 몸에 힘을 키우느라 열심히 재활한 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생활이 제법 제자리를 찾았고, 올 1월부터는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중환자실 생활이 한 달이 아닌 잠깐의 꿈을 꾸고 일어난 시간이고, 그 잠깐에 변한 자기 모습에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재활 열심히 하다가 회사에 다시 간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많이 떨리고 초조한가 봅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리로 진급한 지 2주 만에 쓰러졌는데 그 듣고 싶었던 '송 대리님' 소리를 드디어 듣게 될 텐데, 남편의 9개월 만의 첫 출근을 응원하고 싶어서 지난 힘든 시간을 기억하며 편지를 씁니다.

"송 대리! 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잊지 마! 용기를 내서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걸어! 좋은 날이 올 거야."

Letter 13

막둥이와 함께한 길 위의 인문학

남윤원 | 전남 순천시 조례연동길

지천명을 갓 넘긴 내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인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만들어지면서 아버지라는 책임을 갑자기 맡아 첫째와 둘째를 좌충우돌하며 키웠기에 셋째 막내아들에게만큼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마침 '길 위의 인문학'을 소개받았다.

'길 위의 인문학'은 우리가 사는 순천 지역의 순천교육공동체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유서 깊고 현시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유적지를 선정하여 인문학을 주제로 배우고 토론하는 행사인데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많이 참여한다.

2017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우리 집 막둥이와 나는 인문학 여행을 시작했다. 첫 여행지는 강원도 영월을 거쳐 충주호를 둘러보는 1박 2일의 여정이었다. 새벽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 회원들과 인

사 나누고 음식도 먹으며 지적인 쾌락을 듬뿍 안기는 인문학 특강을 몰입하여 들었다.

초등학생인 막둥이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지루할 수 있어 이야기도 들려주고, 숙소에서는 일행인 중학생 형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 애썼다. 특히 저녁 무렵 충주호에서 머문 시간에는 7080 세대가 좋아하는 '부활'의 라이브 공연을 보는 행운도 따라 막내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노래를 함께 불렀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퀴즈도 풀고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 삼아 사진도 찍었다.

두 번째 인문학 여행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안동 도산서원을 답사하는 코스였다. 이제는 친숙한 얼굴들이 많아져 여행 기분이 한껏 들떴는데 내가 국사 교과서에서 본 사진이 머릿속에 또렷한 무량수전은 버스 안에서 역사학자께서 강의해 주시어 흥미가 배가되었고 아들에게도 나의 짧은 역사 지식을 전수했다. 단차가 높은 부석사 돌계단을 수행자처럼 오르고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안양루에서 멀리 굽이치는 산세를 보며 여기가 천하제일 명당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려오는 길에는 탐스러운 사과를 한 보따리 사고 아들과 함께 사진 찍느라 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작은 소동도 일으켰다.

막둥이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키도 훌쩍 자라고 사춘기가 찾아와 아빠와 함께하는 인문학 여행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에 물심양면으로 선심 공세를 펼쳐 2018년 봄에는 윤선도의 세연정과 장보고 공원에 다녀왔다. 배를 타고 보길도에 도착한 우리는 풀 내음과 피어나는 아지랑이로 봄기운을 느끼며 윤선도가 만들었다는 세연정으로 가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정원을 거닐며 아들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꿈을 함께 얘기했다. 완도 장보고 공원에서는 잘 조성된 산책로와 유적지 탐방을 통해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위대한 업적과 해양개척정신을 배웠다.

같은 해, 네 번째 인문학 여행길은 남한산성, 두물머리, 세종대왕 영릉을 답사하는 여정이었다. '남한산성' 영화를 보아서 더 생생하게 다가온 남한산성 성곽에 올라 병자호란의 시대적 배경과 당파싸움에 대해 아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긴 성곽과 해발 500m가 넘는 자연지형에 어울리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곳을 걸으며 가히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꼈다. 저녁에는 수원에 사는 여동생 내외와 조카가 치킨을 사 들고 깜짝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9년은 막둥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로 마산, 창원 일원으로 다섯 번째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마산 3.15기념관에서는 그 시대 학생들의 기개와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방문해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진실을 알게 해주는 기록을 보며 위령탑 앞에서 묵념도 올렸다.

다음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경상남도 제1호 지방공원인 '거창 창포원'! 코스모스, 국화, 상사화 등이 우리를 반기고, 꽃 이름 맞추기 게임에서 1등을 했을 때는 아들이 호박꽃보다 더 큰 웃음을 지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코로나가 잠시 주춤한 며칠 전에는 고등학생이 된 막둥이하고 마지막 인문학 여행을 진주성 일원으로 다녀왔다. 마침 그곳은 아들이 다섯 살쯤에 온 가족이 봄나들이를 다녀온 곳이기도 했다. 푸른 남강을 끼고 있는 진주성 촉석루에 올라 논개의 충절에 귀 기울이고 430년 전에 발발한 임진왜란의 실상을 잘 알려주는 국립진주박물관에도 들렀다.

이리하여 우리 집 막둥이하고 2017년부터 시작한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은 모두 여섯 번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잠들어 나에게 머리를 기대고 있는 막둥이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건네 보았다.

"막둥아,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은 굽이굽이 험난한 산을 넘을 때도 있고, 거센 물살이 일렁이는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유적지 답사에서 배운 통찰력과 삶의 지혜를 떠올리며, 물음표(?)와 느낌표(!)가 가득한 너의 인생길을 잘 헤쳐 나가기를 이 아빠는 빌고 또 빈다."

Letter 14

나만의 정리 팁

김경주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저에게 '정리 수납 자격증'이 있는 걸 아는 지인들이 팁을 달라고 부탁하셔서 잘 전달할 수 있게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 여성시대 가족들에게도 저의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베테랑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정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리는 잘하는데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향이라 정리수납을 배우게 되었어요. 단체 컨설팅을 하면 보통 30평대 아파트에 15명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런 일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고, 개인적으로도 정리 출장을 가고, 허리 수술하기 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같은 수강생 중 한 분의 집 정리를 시작으로 그분의 펜션, 사무실 정리, 또 갑자기 돌아가신 남편의 짐 정리와 집 정리를 부탁한 분이 있었고, 어느 댁은 같은 아파트에 친정이 있어서 11층 그분 댁과 13층 친정집까지 정리했지요.

정리란 그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소와 정리가 같이 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정리가 아니라 나만의 시스템 정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일별 정리를 강추합니다. 월요일은 큰방 정리, 화요일은 화장실·화분 정리, 수요일은 부엌·부엌 쪽 베란다, 목요일은 거실·거실 쪽 베란다, 금요일은 냉장고 정리, 토요일은 유리·창틀·이불 세탁, 일요일은 쉼. 이런 식으로 대략 계획을 세웁니다.

혹여 텔레비전 정리 프로그램 보시고 모든 짐을 한꺼번에 다 꺼내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혼자 하는 정리는 일을 크게 벌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다수의 정리 수납가가 함께 정리하면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우리가 짐 정리한다고 모두 다 꺼내는 순간, 바로 머릿속은 하얗게 되고 멘붕이 옵니다. 천천히 나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이면 저는 부엌을 정리할 거예요. 냉장고가 지저분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금요일이 있으니까요. 자,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바빠서 거실 정리를 넘어가셨다고요? 괜찮아요. 오늘은 냉장고에 집중하세요. 육류/생선/채소/과일/찬 등을 유통기한별로 칸을 나눈 뒤 사용한 것은 체크하고, 냉장고 일지를 붙여두면 음식물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고 남은 주재료를 보고 어떤 메뉴를 할지 정하기도 수월하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스템화 되어 있는 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여기에 이런 것을 두고, 저기에 저렇게 정리할 거'라는 얘기를 공유하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그날의 사소한 정리 계획이라도 적어둔다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계획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달의 손편지

기도의 추억

박옥경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시내버스를 타면 젊은이들이 벌떡 일어나며 "앉으시지요" 할때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데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60대 입니다.

세월은 흘러 30년전의 일로 올라갑니다. 결혼해서 저는 시댁집에서 살고있을때지요.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에, 빨래와 청소를 하면 하루해가 저물지요. 개발지역이라 허허 벌판에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지요. 하루는 그 벌판에 "펑뚱" 하며 벨이 울렸지요.

지금처럼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서 믿어 보았더니
저보다 열살정도 더 드신분들이 차한잔 마시자고
오시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 커피한잔 재접해
드렸더니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다며 자기집에
놀러와서 칼국수 같이 먹으면 안되겠냐고 해서
가까워졌지요. 자연스레 왕래하였고 알고보니
그분은 교회다니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칼국수도 먹고 교회도 다니자고 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요. 왜냐면 그분이 끓여준
칼국수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잘 돌보아 주시고
잘 놀아주셨지요. 그리고 두달정도 교제한후 집에서
모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한테
해주면 안되겠냐고 제의를 하셨는데 저는 해본일도
없고 할줄도 몰라서 못 한다고 했더니 그냥 몇자
적어서 읽으라고 하더군요.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끝에 기도하는책을 보고 몇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살짜리 아들과 돌 된 딸을 들쳐업고

한손에는 아들 손을 잡고 또 한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그 분 집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들이
지나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보채서 혼도 내보고
우는아이를 설득하며 그 집사님 집에 도착했지요.
교인이 8명정도 모였는데 그 날따라 체력소모를
많이해서 그런지 배도 고프고 집이 보락보락 나는
칼국수를 앞에두고 침을 꼴깍 삼킬때 그 집사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며 오늘은 "우리새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심호흡을
크게 몇번하며 속으로 "할수있다" 외치며 성경책
갈피에 넣어둔 메모를 찾는순간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들과 실갱이 하다가 빠져버린 겁니다.
앞이 캄캄하더군요. 무슨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역식구들은 다 같이 고개를 숙인채 제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할말이 없었고 아무런 생각이 안났어요.
그래서 일단 "아부지~" 라고 했지요.
또 한참있다 "하나님 아부지~" 30초가 흘렀어요.
교인들이 고개를 힐끗힐끗 들면서 저를 쳐다 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아부지 ~ " 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은 안해도 교인들의 입에는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은 했으나 그 다음은 뭐라고 말을 마무리 할까
그 짧은 시간에 연구를 했지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부지 ~"
교인들은 웃음을 참느라 미간을 찡그리며 입을
오무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그때 그 추억은 잊지를 못한답니다. 30년전이라
그 분들은 어디에 계실지는 몰라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잠시나마 코로나로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버렸으면
합니다. 어떤분은 화가 많이 났을때 제 생각을
하면 어느새 입가에 웃음이 맴돈다고 하데요.
이제는 그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과거에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때니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세상살이
힘들지만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0861] 참외 수정하며 여성시대 듣고 있습니다.



[3900] 올 겨울 따시게 보내겠죠?



[9202] 남편이 모은 용돈과 동전입니다. 1년을 모아 늘 저에게 주고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1658] 상추 농가입니다.



[2333] 집이 추워 올해 연탄난로를 들였더니 집안이 훈훈합니다.



[2734] 제가 얼마 전 할아버지 할머니께 털신을 사드렸는데 따뜻하다고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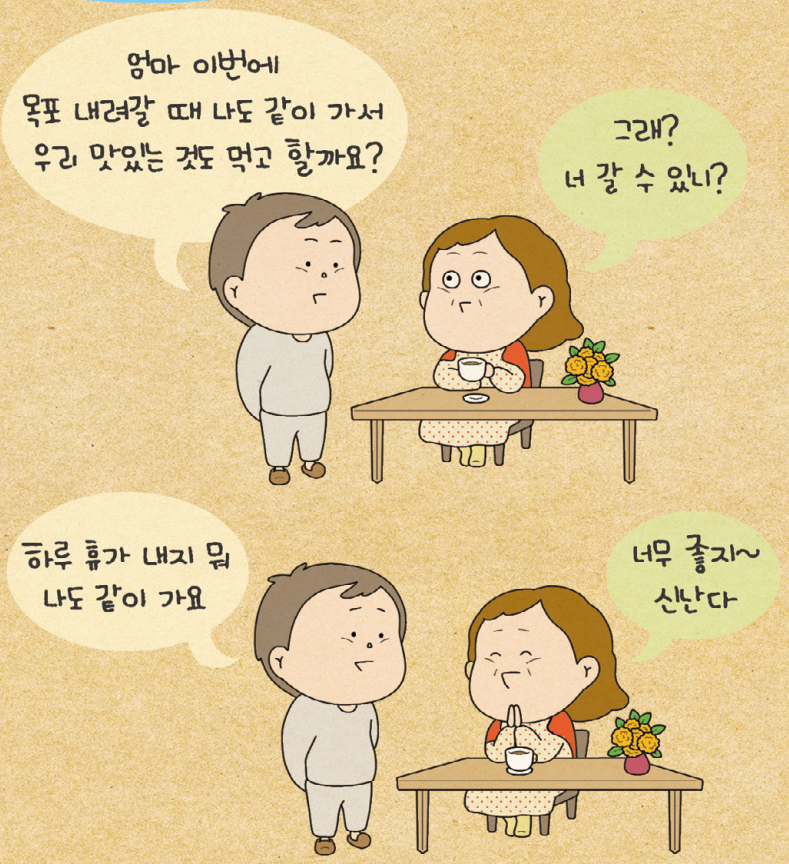


[1426] 부산어시장 고등어 운반하는 기사입니다. 새벽부터 작업하는데 코와 귀가 시리네요.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여성시대 가족 변의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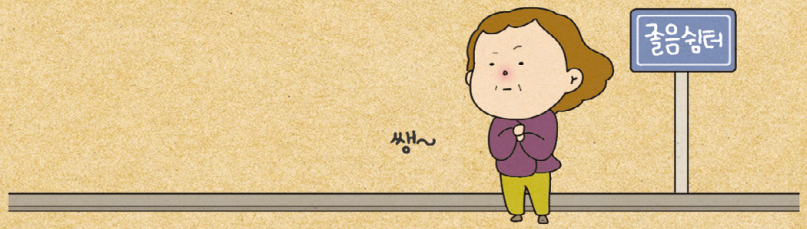
오랜만에 남편, 아들과 함께 고향 목포에 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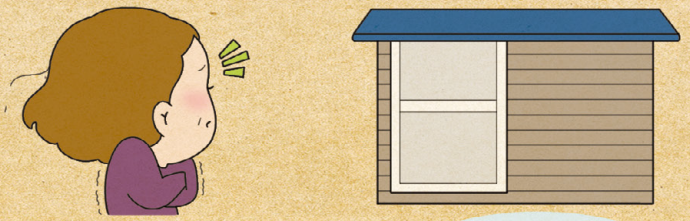
그렇게 졸음쉼터로 들어가
남편과 아들이 운전자 교대를 하고 있는 사이

부리나케 화장실을 다녀오니

아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뒷자리에서 내내 자다 말도 없이 사라진 탓에
제가 없는걸 모르고 출발한 모양이에요



추운 날씨에 핸드폰도, 외투도 없이
막막한 심정이 되어 떨고 있는데
흡게소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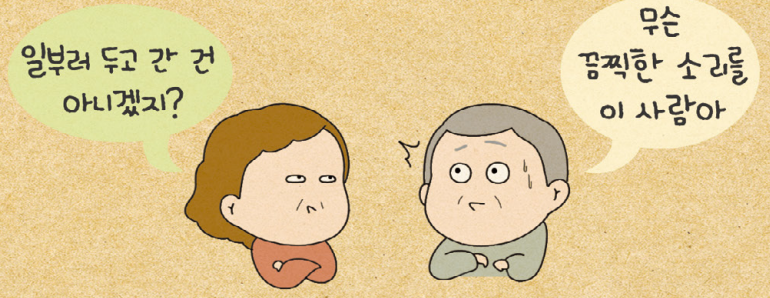
흔히 있는 일인 듯 핸드폰을 건네주는 직원 아가씨 덕분에



춥고 막막했던 그날 이산가족 상봉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다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거래고객
㈜태일씨앤티 김경수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7~80년대 건설 산업은 엄청난 호황이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위기가 찾아오면서 대다수 중소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졌다. 태일씨앤티는 이런 어려운 건설업계에 뒤늦게 뛰어들어 8년 만에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구태의연한 업계 관행 대신 혁신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성장시킨 김경수 대표가 더 나은 태일씨앤티의 내일을 준비한다.

태일씨앤티는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회사다. 지난 2013년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한 '㈜지인건설'을 인수해 '태일씨앤티'로 사명을 변경한 김경수 대표는 20여 년간 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연매출 700억 원 규모의 강소기업을 만들었다. 업계에 뒤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공사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건설회사가 꺼리는 구조물 공사를 선택한 것이 주효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삼성병원, GS건설 브라이튼 여의도 복합시설 등 대형 구조물 공사를 맡아 성공을 거두었다.

"회사를 인수하고 첫 공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거제 조선소 내 공장을 짓는 거였는데 1억 원 규모의 아주 작은 공사였죠. 직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열정을 쏟았어요. 그 결과 다음 해에 116억 원 규모의 거제조선소 사외 기숙사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일씨앤티는 고객을 만족시키고 신뢰를 쌓아 한 번 맺은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원가, 공기, 안전, 품질 면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시공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사전에 예측하여 향후 일어날 문제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이 태일씨앤티만의 비법이다.

업계 후발 주자로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회사에 만족하고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경영한 김경수 대표의 철학 덕분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면 직원들의 진가를 알아주고 보상해주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성과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녀학자금, 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편해 공정함을 더하고, 자체 개발한 그룹웨어와 ERP





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 경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회사를 궤도에 올려놓았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경수 대표는 회사 설립 후 1년간은 아침에 눈 뜨기가 두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다 보니 결제되기 전까지 매달 들어가는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을 마련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지인들이나 금융기관을 모두 찾아가도 선뜻 도와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걱정과 고민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며 힘들어하던 제게 손을 내밀어준 곳이 바로 IBK기업은행이에요. 당시 은행에서 저희 회사 재무구조를 살펴보고 개선책을 알려주면서 자금까지 지원해주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이 저에게는 정말 은인이죠."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최동식 지점장은 "김경수 대표가 쓴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태일씨앤티의 놀라운 성장과 직원들과의 상생을 중시하는 김경수 대표의 올곧은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귀띔하며 "앞으로 계열사를 늘려가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태일씨앤티의 앞날을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적인 유통관리를 위한 '태경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 발굴, 육성 보육,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세르파벤처스' 설립을 시작으로 자재유통 부문, ESG 부문, 투자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태일씨앤티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



태일씨앤티 김경수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최동식 지점장

태일씨앤티 김경수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직원들과 상생하라.
2.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라.
3.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태일씨앤티

대 표 김경수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5 한우빌딩 2층
전 화 070-8897-0761 **홈페이지** www.taeilcnt.co.kr

우리 쌀로 바른 먹거리를 만들다

IBK기업은행 성남지점 거래고객
㈜세준에프앤비 박승용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세준에프앤비는 2004년 오뚜기 OEM 납품을 시작으로
17년간 국내 쌀 가공식품 시장을 선도해왔다.
국내 유일의 3단계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통해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세준에프앤비가 세계 시장에서의 도약을 준비한다.



세준에프앤비는 쌀 가공식품 전문기업이다. 간편조리식으로 만든 떡국, 누룽지, 떡볶이가 주력상품이다. 2004년 설립된 세준에프앤비는 컵라면처럼 물만 부으면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누룽지를 첫 아이템으로 개발해 판매했다. 그전에도 시중에서 누룽지를 판매하기는 했지만 20분 가까이 끓여야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세준에프앤비에서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먹을 수 있는 간편조리식 누룽지를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간편식 누룽지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 판매를 시작했을 때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는데 요즘은 누룽지도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간편식 시장이 커졌고 누룽지 매출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준에프앤비가 오랜 시간 업계 판매 1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누룽지 제조 비법 덕분이다. 누룽지를 만들 때 '밥을 지어' 가마솥 재질의 철판에 밥을 깔고 누룽지를 만드는데 이런 제조 과정을 거치는 곳은 세준에프앤비가 유일하다. 밥을 지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야만 더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지만 밥의 전분이 철판에 눌어붙어 제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타 회사에서는 밥이 되는 과정 없이 쌀을 철판에 깔아 굽다시피 누룽지를 만들기 때문에 구수한 맛은 나지만 쌀에서 우러나오는 단맛이 없다.

"다른 업체들은 유럽의 와플 기계를 응용해서 누룽지를 만들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누룽지를 만드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기계 설비도 저희가 직접 한 거예요. 전에 없던 기계를 새롭게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기계를 완성하고 공정을 표준화시키기까지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룽지를 제조하면서 끓는 물을 이용해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쌀 가공 간편식 기술이 축적됐고 그 기술을 이용해 7년 전부터 떡





가공식품도 제조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간편식 떡볶이인데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무균 공정을 통해 식품첨가물이나 방부제 없이 상온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를 출시했다. 덕분에 떡 가공식품을 만드는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현재 떡 가공식품 관련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2021년 세준에프앤비의 매출이 200억 정도 됐어요. 2020년까지는 누룽지 매출이 훨씬 컸는데요, 떡라인의 케파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IBK기업은행 성남지점의 도움으로 작년 5월 제2공장을 준공하면서 제1공장은 누룽지 전문공장으로, 제2공장은 떡 전문공장으로 이원화되어 떡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 앞으로 떡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룽지에 다양한 영양소를 첨가해 고기능성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하고 떡의 생산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수출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 성남지점 고석현 지점장은 "한국 사람들의 주식인 쌀을 이용한 세준에프앤비의 제품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K푸드"라며 "세계 시장에 진출해 성공할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이 동반자이자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식품을 만들겠다는 세준에프앤비가 세계로 뻗어나가 K-푸드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한다.





IBK기업은행 성남지점 고석현 지점장(왼쪽)과 세준에프앤비 박승용 대표

세준에프앤비 박승용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2.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3.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라.

㈜세준에프앤비

대 표 박승용 **주 소**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홍성길 53
전 화 033-432-9246 **홈페이지** www.sejun.co.kr

코너 속 편지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81 고라니 선물
84 호두과자 남매
87 주특기 영현등록병

사랑탐구생활

94 장거리 사랑
97 잔정 없는 것도 복

주말엔 투유

99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101 쑥떡에게
103 떡볶이집 청년 사장님께
105 사랑하는 언니에게
108 부기에게

장용의 단·필·충

고라니 선물

이재윤 | 경기도 시흥시 봉우순환로

저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방공대대 중사 출신입니다. 2013년 방공 부대 특성상 장교 및 부사관은 1년에 6개월 정도 작전진지에 올라가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전진지란 주변 시야가 확보된 산 정상에서 생활하는 곳으로 작전진지 또는 방공진지라고 합니다.

당시 우리 중대는 사단사령부 및 인근 마을의 방공방호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저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지라 군화끈이 조금 느슨해져 있고 군기가 조금 해이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을 때였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로 외출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외출이니까 일 해결하고 짜장면에 소주 한 병만 먹고 들어갈까'라고 계획을 잡았지요. 외출 후 일이 순탄하게 처리되어 계획대로 중국집에 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유니짜장 하나에 소주요."

"근데 군인한테 소주 팔아도 되나? 나까지 영창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짬밥 좀 돼서 괜찮습니다."

"그래그래~ 그럼 맛있게 비벼라."

짜장면에 소주 한잔 그 부드러운 목넘김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사제의 꿀맛을 보려니까 두 달째 보급 음식만 먹고 있는 우리 진지원들 생각이 났습니다.

"사장님, 탕수육하고 짜장면 곱빼기로 10인분만 싸주세요."

"오케이, 군인 사장님, 최고다! 최고! 군만두는 서비스."

주문한 음식을 바리바리 싸 들고 흡사 산타클로스처럼 병사들에게 갔을 때 당연히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으악~ 냄새만 맡아도 쓰러집니다."

"반장님! 오늘부터 저는 반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짜장면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병사들은 싸 온 음식을 번개처럼 먹어 치운 후 취침에 들어갔고, 간부 3명은 남은 음식에 간단하게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아무리 젊은 나이여도 오랜만에 마신 술에 살짝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반장님, 여기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떡합니까."

"그거 그냥 밖에 던져. 어차피 쟤가 먹을 거야."

"쟤요?"

"저기 쟤~ 지금 밖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있는 애."

갑자기 고라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하! 쟤가 있었구나. 고라니."

"그래그래. 우리 라니가 먹을 거야."

후임은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철책 밖 고라니를 향해 던졌는데 아뿔싸! 조준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큰 나무의 꼭대기 가지에 투명한 봉투가 그대로 걸려 버린 겁니다.

"헉! 어떡하죠? 손이 안 닿는데."

"어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비 오고 바람 불면 다 떨어진다. 그럼 쟤가 알아서 주워 먹을 거야."

그러자 다시 고라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봐. 알아서 먹는다잖아. 걱정하지 말고 자자."

그렇게 마무리 짓고 뒷정리를 한 후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통신보안! 방공진지 중사 이재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행보관인데 오늘 대대장님 순시 있으시다. 알고 있지?"

"예? 오늘요? 알겠습니다! 충! 성!"

제 뇌리에는 간밤에 던져버린 고라니 봉투가 스쳐서 갔고 그것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집합! 빨리 집합해! 오늘 대대장님 순시 있으시다. 저 나무에 걸린 저 투명한 봉다리 보이지? 저거 떨어트리는 병사는 무조건 포상휴가다. 무조건! 알았지? 대대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떨어트려! 빨리!"

우리 소대의 단합은 그때부터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작전 때보다도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진지 내에 있는 돌멩이란 돌멩이는 다 끌어다 던진 결과, 한 병사의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비상하여 꼭대기에 있던 나뭇가지의 중심부를 적의 심장을 가격하듯 정확히 분지르면서 걸려있던 쓰레기 봉지 그대로 자유낙하! 대대장님 도착 전에 쓰레기를 무사히 제거할 수 있었고 마지막 돌멩이를 던진 병사는 2박 3일 휴가를 떠났고 고라니는 그 후로도 종종 크게 자주 울었답니다.

단필충 팬이어서 꼭 한 번 사연 쓰고 싶었습니다. 충성!

장용의 단·필·충

호두과자 남매

박자연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제 남동생의 군대 시절 이야기입니다.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은 키가 무척 큽니다. 183cm 정도인데 몸은 막대 과자처럼 말라서 몸무게가 60kg 초반이라 바람 불면 쓰러질까 날아갈까 항상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런 동생이 약 17년 전쯤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훈련소가 모두 의정부나 논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동생은 논산에서 훈련받고 수안보에 있는 경찰학교로 간다더군요.

"우와! 군대에 온천도 있어? 너 짱 좋겠다."

그 한마디에 그날로 남매의 연이 끊기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이 어찌나 버럭 화를 내던지 군대에 안 가는 제가 군대를 알 리 있나요. 하필 그때 주변 남자들도 미필에 면제가 많아서 군대 얘기를 들을 일이 별로 없었던 저는 암튼 수안보의 드넓은 학교로 부모님과 함께 동생

면회를 하러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이던 애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아이고~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엄마, 뭔 소리야? 얼굴이 아주 달덩이가 됐구먼!"

"엄마~ 나는 아무래도 군대 체질인가 봐요. 여기 밥이 진짜 맛있어. 집에서 먹던 것보다 훨 낫다니까."

"어이구! 이 불효자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삼시세끼 너 해먹인 엄마가 뭐가 되냐?"

"아, 그런가? 미안, 엄마~."

철없는 동생은 훈련소를 마치면 서울에 있는 남대문인지 광화문인지에 있는 어느 부대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장녀인 저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하던 우리 부모님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아니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동생이 북으로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 왜들 저러시나 싶었죠.

"그래서 동생, 어디 포졸로 가는 거야? 광화문에서 뭐 해?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 지키는 거야? 거기 동상 있는 거 맞지?"

"누나야, 무식하면 공부 좀 해라. 공부! 나 동대문 1003부대라니까. 누나 학교에 친구 없어? 선후배 없냐고? 1003대 몰라? 1003부대!"

"뭐? 1003부대? 그럼 너희 옆 부대는 1004, 천사 부대야? 아악 너무 웃겨! 엄마, 들었어? 아빠! 얘 천사 부대 간대~ 천사 부대~."

"아오, 내가 저런 사람을 누나라고 부른다. 나 자대배치 받으면 절대 오지 마라. 군대 멍청이! 누나는 완전 면회 금지다!"

그렇게 제 앞에서 큰소리치던 남동생은 그 후로 주말만 되면 저에게 전화해서 못살게 굴었습니다.

"누나~ 나 외출 좀 나가게 와줘~ 응? 누나앙~"

"아니 이게 어디서 애교질이야?"

"아잉, 누나~ 나 그게 있어야 외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누나~ 그것 좀 갖고 와주라."

지 아쉬울 때만 누나 누나 하는 걸 저희 부모님은 아실까요? 아무튼 동생이 원한 건 바로바로 저희 고향,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우리 집이 천안이라니까 선임들이 천안 명물 호두과자 먹고 싶대. 누나가 제발 들고 와주라."

그렇게 저는 호두과자를 싣고 남동생이 있는 1003부대로 갔습니다. 남자들 아니 군인 아저씨들의 반응이 아주 열광적이긴 했어요. 무슨 밥도 못 먹고 훈련하나 싶을 정도로 어찌 그리 잘 먹는지. 그 후로 주말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동생이 동대문을 지키는 기간 동안 저는 매주 기차를 타고 호두과자를 몇 상자씩 사다 날랐습니다. 아마 그 돈 모았으면 집 한 채, 자동차 몇 대는 샀을걸요. 주말마다 그러느라 연애길 다 막혀서 소개팅도 못 하고 기차 마일리지만 엄청나게 쌓였지요.

그 동생이 그래도 철들면서부터는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지금은 이 누나에게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하는 일등 삼촌이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그때 제가 뿌린 호두과자 속 호두가 제비가 몰고 온 씨앗이었나 봅니다.



장용의 단·필·충

주특기 영현등록병

문희웅 | 경남 창원시 성산구

1999년 2월 18일,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고 경기도 국군병원으로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국군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주변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이야~ 군 생활 편하게 했네."

"우아! 군대에도 병원이 있어?"

이런 반응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무조건 편했을 거라는 선입견은 좀 서운합니다. 군 생활이 편해봤자 얼마나 더 편하고 또 남보다 힘들어봤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인생에서 소중하고 값진 2년여의 세월을 그것도 청춘을 군대에서 사명감 하나로 복무한 우리가 모두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근무한 국군병원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군병원은 겉으로 봐서는 일반 전투 부대와 똑같습니다. 그

리고 외래진료를 나오는 일반 병사들, 특히 꾀병의 경우엔 병원을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병원 부대에서 일하는 기간병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사병들은 수백 명 환자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세탁병은 수백 명의 환자복을 세탁해야 하고 PX병은 환자들과 면회객들 때문에 병원 부대에서는 제일 힘든 보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보급병은 등록, 행정병은 환자들 입·퇴원 수속, 약제과 응급실 수술실의 의무병들은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도와 환자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짧았습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내무실의 여건 또한 당시에는 엄청 열악했는데요. 환자 병실에는 24시간 냉난방기가 가동되었지만 저희가 생활하던 내무실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몇 대 없었고 중대원은 총원 200명인데 내무실은 단 2개. 1 내무실에서 130명, 2 내무실에서 70명이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가장 열악했던 건, 개인 관물대 200개를 다 놓을 공간이 없어 관물대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사용이 불편한 2층 관물대는 이등병과 일부 일병들이 사용하면서 1층 관물대 선임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일종의 셋방살이 같았지요. 무엇보다 2층 관물대를 쓴다는 건 저녁 점호 후에 편하게 잠을 청할 자기만의 보금자리가 없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간혹 인품 좋은 선임들은 휴가를 가면서 자기 관물대 밑에서 자라고 허락을 해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엔 대부분 쉴 곳을 찾아 메뚜기를 뛰어야 했습니다.

저의 신병 때 일입니다. 저녁 점호 후에 전투복과 군화를 챙겨서 그날도 휴가자나 열외자의 빈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새 불침번이 내무실을 소등하고 인원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부로 제 밑으로는 절대 이동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해서 얼어붙어 있던 이등병 시절, 마음이 더더욱 급해진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빈자리로 보이는 관물대 앞에 서서 옆자리 선임에게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상병님, 혹시 옆에 병장님 휴가로 아는데 오늘 저 여기서 자도 되겠습니까?"

"여기? 누가 이미 예약했는데 딴 데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저, 일병님 여기 혹시 오늘 자도 됩니까?"

"여긴 병리과 당직 자린데 좀 있으면 내려올 거야. 너, 여기 누워있으면 아마 바로 저승 갈 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 한 몸 뉠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이 등 뒤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살며시 고개를 돌렸더니 불침번이 저를 째려보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넌 뭔데 아직 안 눕고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누워라. 아니면 전투화 날아간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아무 침상에나 허겁지겁 눕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도의 한숨을 돌린 후 다시 전투화와 전투복을 챙겨서 다른 빈자리를 찾아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뭔가 쿵! 하고 천둥소리가 나면서 정수리가 빠개지는 듯한 통증이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건 일명 화이바. 누군가 방탄 헬멧으로 제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요즘엔 이등병이 병장 자리에 누워있네?"

"죄송합니다! 잘 때를 못 찾아서 잠시 불침번 인원 파악 동안만 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죄송하면 다야? 이거 아주 그냥 삐리리네~ 삐리리~ 삐리리~."

하필이면 그 자리는 악질로 소문난 병장의 자리였고 저는 부리나케 도망가다시피 중대 행정반을 지나 2 내무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내무실 문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방금 악질 병장에게 당한 일 때문에 저는 겁에 질려있었지요.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쳤고,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복도에 서서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지만 행정반과 내무실을 지나가는 선임들은 저를 흘깃 보기만 하고 다들 관심이 없다는 듯 지나쳐 갔습니다. 어쩌다 문을 열고 나온 선임도 "아이 놀래라? 너 뭐꼬? 안

비키나!" 다들 제가 거기 있건 말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오가는 선임들의 싸늘한 말투, 저는 제가 부대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탈영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면서도 제가 눈물 흘리는 걸 들키면 또 욕 먹을 것 같아서 계속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서 있던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그리고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낚아채듯 제 손목을 힘껏 잡아서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그는 제가 들고 있던 전투복과 군화를 보고는 대충 눈치를 챈 듯

"점호 끝난 지가 언젠데 불침번 신고는 했나?"

"네, 신고는 했습니다."

"그래? 그럼 최소한 탈영병은 아니구먼. 일단 눈물 마저 닦고, 내 따라 들어가자."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2 내무실. 이미 소등은 했지만 일부 선임들은 그때 한참 유행하던 허준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컵라면을 먹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어이 불침번아!"

"예, 박 병장님! 이제 오십니까? 박 병장님은 제가 인원 체크 했지 말입니다."

"그래 고맙고. 임마는 내가 잠시 밖에서 얘기한다고 데리고 나갔었다. 저쪽 방에서 신고는 했다네."

순간 어둠 속에서 플래시로 얼핏 보인 불침번 선임의 싸늘한 눈길

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3분대 이병, 문희웅입니다" 잽싸게 보고했고 싸늘했던 불침번은 이내 "그래~ 니가 박 병장님 직계 조수구만. 사수 잘 만나서 너는 이제 군 생활 풀린 거야. 빨리 자리에 누워라. 10초 준다" 나긋하게 말하더군요.

"뭐하노? 저기 내 이름 적힌 관물대 보이제? 니는 오늘 저기서 자라."

그리고 홀연히 사라지신 박 병장님의 뒷모습.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어디서 주무셨는지 알 수 없는 저와 2년 차이 제대 말년이셨던 박 병장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그렇게 힘든 이등병 시절의 하루를 편안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국군병원 군수과 보급병으로 투입이 됐는데 내무실에서는 차마 눈도 못 마주쳤던 하늘 같던 선임들이 "과에서 일할 때는 경례는 생략한다. 그리고 사수라고 편하게 부르고~"라며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제 주특기는 2112 영현등록병이라는 보직이었는데 군대에서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전우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관련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안실 냉장고의 온도를 영상 1도에서 2도로 세팅해야 하고 장례식까지 수시로 냉장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일, 가끔은 장의사가 염하는 걸 돕기도 하고 군의관과 군 수사관이 부검하는 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방송으로는 차마 다 말하기 어려운 안타깝고 힘든 사연도 제법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음과 정성으로 제 본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보직에 대해 가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밖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쯧쯧쯧."

"그러게. 참 팔자도 사납네. 좋은 보직도 많은데 어쩌다 그런 보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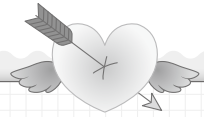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일병 때까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꾹꾹 참기만 하다가 상병 때 어떤 높은 지위의 관계자분이 비슷한 얘길 비꼬는 말투로 하시는 걸 듣고 제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했고 비록 제가 원해서 받은 보직은 아니지만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보직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운이 없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쫌 멋있었던 그때 제 말은 그분을 통해 우리 부대 병원장님 귀에까지 들어가 저는 뜻하지 않게 4박 5일 포상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더디게 돌아갔지만 시간이 흘러 저 역시 군대 권력이라 불리는 분대장이 되었고, 이등병 시절 겪었던 부조리를 후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2층 관물대는 일병과 상병에게 1층 관물대는 이등병과 일병에게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등병 때 동기 여섯 명과 매일 닦아야했던 병장들의 군화 역시 다른 분대장들과 수차례 논의 끝에 전역 2~3개월이 남은 말년 병장들 전투화만 이등병이 닦게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닦도록 바꿨습니다.

그리고 병원 소식지에 '분대장 교육을 마치며'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끝으로 2001년 4월 17일 명예로운 전역으로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랑탐구생활

장거리 사랑

이성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부터 그가 제 눈에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외모가 썩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착한 마음씨. 늘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혼자서 밤새 끙끙대며 영어 대자보를 쓰는 모습도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주 잘 맞는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음악.

"어머? 너도 이 노래 좋아해? 나도 이 팝송 완전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이 테이프 너 가져가서 들어."

"아니야~ 괜찮아~ 이거 니 꺼잖아~."

"괜찮아. 자취방에서 너 혼자 있을 때 들어. 괜히 외롭다고 벽만 긁지 말고."

"야, 네가 뭔데 내 외로움을 관리하냐?"

"글쎄 사람들이 우리 보고 CC라던데? 알지? 씨씨, 캠퍼스 커플~ 암 유어 보이 후렌드~ 유 아 마이 걸 후렌드~."

우린 그렇게 조금씩 사랑을 싹틔워 나갔습니다.

그러다 6개월간 제 친구 영진이와 남친까지 셋이 함께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떠났어요. 그런데 저와 영진이가 학원을 다니는 동안 남자친구는 집에만 있더라고요.

"야, 너 진짜 학원 안 다닐 거야?"

"응, 난 돈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TV만 볼 거야. 여기 텔레비전 이즈 마이 티쳐얼~ 잉글리쉬 티쳐얼~."

너무 어이가 없었죠. 남의 나라까지 와서 하루 종인 TV만 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6개월 후,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쯤 영진이와 저는 더듬더듬 겨우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남친은 거의 원어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TV 티처'와 매일 귀가 뚫려라 '리스닝'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말도 되더랍니다.

남자친구는 홍콩으로 취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취직했고 우린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장거리 연애, 그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군요.

"아~ 남자친구 보고 싶다."

"그러게. 너도 참 안됐다야. 나야 뭐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지만 너는 그게 뭐냐? 있어도 못 보고 있어도 외롭고 그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아?"

"그래. 너네 회사 서 대리가 잘해준다며. 이참에 확 갈아타는 건 어때?"

"그럴까, 확 갈아타 버려? 에이, 근데 또 어떻게 그래. 의리가 있지."

"야 맞다! 근데 너 그 소식 들었어? 너랑 연수 갔던 영진이. 걔 지금

스튜어디스 됐다며? 걔가 요즘 홍콩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간다대."

"아, 그래. 나는 몰랐네.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너 진짜 몰랐어? 헐, 대박. 홍콩에서 너 남자친구랑도 자주 만난다던데?"

위기감을 느낀 저는 부랴부랴 회사에 휴가를 내고 홍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홍콩 와서 살래."

"진짜? 그렇게 오라고 해도 절대 한국 못 떠난다고 심술부릴 때는 언제고? 무슨 일 있어?"

"몰라. 그냥 다 불안해. 내가 한국 대신 널 선택할게.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저는 남편의 회사를 따라 홍콩, 싱가폴, 중국 등으로 약 20여 년간 글로벌하게 살다가 작년에 겨우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 만약, 이 사람을 잡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한국에서 편하게 엄마 밥 먹으면서 한국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 만나 잘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멀리 있던 이 사람을 붙잡아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낯선 외국에서 힘들 때마다 문득문득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긴 했지만 그건 아마도 남편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떤 강력한 힘! 그게 바로 사랑의 힘 아니었을까요.

늘 남의 편이 아닌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고맙고. 해외에서 영어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매 순간 꿋꿋하게 잘 견디어줘서 또 고마워.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우리 남은 생도 재밌게 살자. 사랑해~.

사랑탐구생활

잔정 없는 것도 복

지준구 | 충남 아산시 음봉면

군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 같은 과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82학번, 아내는 85학번. 문자 그대로 격동의 세월 한복판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졸업 후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큰 갈등 없이 결혼했고 아이 둘 낳고 먹고사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처형 가족과 갈등이 좀 생겼는데 모든 것이 불편해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내는 당연이 제 편을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처형 가족 편을 들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혼이란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도 있고 제 부모님도 이혼을 하신 터라 제가 겪은 아픔을 제 아이에게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30년. 이쯤 되면 모든 게 무뎌질 만도 한데 여전히 서운한 건 서운합니다.

얼마 전엔 아내와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이 따가운 겁니다.

"앗! 따가! 이게 뭐지?"

"어디 봐봐. 여기야?"

"응, 벌레에 물린 거 같은데."

"그러게. 엄청 빨갛게 붓네."

"부풀어 오르는 게 영 심상치가 않다. 약이라도 좀 챙겨올 걸."

"그러게. 흠~ 그러면 당신은 여기 잠깐만 좀 있을래."

"왜? 당신은 어디 가려고? 설마 약국?"

"아니~ 정상이 바로 요기잖아! 나만 후딱 갔다 올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 당신 여기서 조금만 참고 있어."

저는 제가 독충에 쏘여서 손이 붓고 있으니까 아내가 당연히 바로 하산하자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정상이 코앞이니 금방 갔다 오겠다며 저 보고 조금만 '참고 있어라' 하더군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산 세월이 어느덧 30년.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요.

'아내가 이렇게 잔정 없는 것도 복이다. 내가 먼저 죽어도 아내는 큰 슬픔 없이 잘 살겠구나!'라고요. 부디 제 생각이 옳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엔 투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윤희솔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할머니!

할머니 가신 지가 벌써 2주나 흘렀네. 앞으로 2년은 더 흘러야 눈물마를 날이 올까? 난 지금 할머니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 '곱게 살아라.'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옮겨 적으면서 이 그리움을 견뎌보려 해.

아야, 곱게 살아라.

할미가 태어나 보니 이미 남의 나라였고, 남의 나라가 내 나라인가 싶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야 진짜 내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더라. 졸업을 6개월 미루고 그제야 제대로 우리말을 배웠지. 입에 붙은 일본 말을 떼어내고 입에 설은 우리말을 붙이느라 한참을 애먹었단다.

할미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 너머 있는 학교까지 걸어가는 게 싫었어. 어린 마음에 학교도 잘 안 갔지.

그랬더니 더 새벽같이 일어나 농사꾼들 밥을 지어야 하는 집으로 시집보내더라. 서방님은 동리에서 이름난 인재라 서울로 가는 인사라는데, 나는 서방님이고 뭐고 다 낯설었지. 서방님 닮았단 아들이 젖먹일 때쯤 돼서야 이따금씩 오는 서방님이 기다려지더라.

그렇게 여느 때처럼 서방님을 기다렸는데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이 난리도 아니라는 소식을 들었다. 할미 속은 자꾸만 울렁거렸지. 이윽고 마당으로 관 하나가 쓱 들어왔어. '저게 뭐야' 하고 쳐다보는데 시아버지가 날 보며 "야야, 어여 절해라. 느 서방이다" 하시더라. 난 그 길로 기절해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이제까지 혼자서 너희 아빠 키우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느라 세월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어느덧 까무룩 하니 이리 꼬부라졌네. 서방 없는 여자가 멋 낸다고 흉볼까 봐 고운 옷 한 벌 못 해 입고 빨간 루주도 한 번 못 발랐다.

그런데 아가야, 다 부질없다. 곱게 살아라. 욕 안 먹으려 애쓰지 마라. 어차피 욕할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욕하더라.

이제 와 내가 무슨 한이 있겠냐만 내 젊은 날 곱게 살지 못한 게 어리고 고왔을 나한테 미안하다.

아가야, 곱게 살아라. 남한테 곱게 말고 남 이사 까짓거 하면서 너한테 곱게 살아라.

주말엔 투유

쑥떡에게

김지우 | 경남 산청군 단성면

콩고물 노랗게 묻힌 예쁜 쑥떡아, 안녕!

나 어릴 때 배고팠던 적이 정말 많았어. 우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였는지 다른 집보다 유난히 먹을 것이 없었지.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꽃과 진달래꽃 그리고 이름 모를 풀뿌리를 따다가 허기를 달래곤 했어. 그중에서도 들에서 캔 쑥으로 만든 쑥떡! 네가 최고로 좋았어. 내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네가 고마웠어. 특히 네게 붙은 노란 콩고물을 혀로 핥아 먹을 때는 거의 천국에 온 기분이었지.

어제, 집 문 앞에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택배 상자 하나를 봤어.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쑥떡 먹는 장면이 나와서 바로 널 주문했다는 거야.

난 널 꺼내 냉동실 깊은 곳에 꾸역꾸역 넣으며 중얼댔지.

"요새 누가 쑥떡 같은 걸 먹는다고 한 박스씩이나 주문했대. 못살



아 정말!”

순간,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어. 그렇게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찬밥 취급이라니. 쑥떡이 네가 너무 서운하다고 흘겨보는 것만 같더라. 그래서 잽싸게 너를 꺼내 예쁜 그릇에 담고 인증사진까지 찍었지.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사진 밑에 이런 글도 썼어.

<쑥떡아, 사랑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댓글도 달아주더라?

<쑥떡을 사랑한다니~ㅋㅋ 너 좀 귀엽네?>

<나도 쑥떡이를 사랑하지롱~>

네 덕분에 간만에 메신저로 친구들과 수다 좀 떨었다. 어린 시절 쑥 캐던 이야기도 하면서 추억 여행 한 번 잘 다녀왔어. 그때 그 시절 나와 내 친구들은 네 덕분에 굶주리지 않았어. 쑥떡아, 정말 고마워! 그때의 널 잊지 않을게. 그때의 날 잊지 않을게.

주말엔 투유

떡볶이집 청년 사장님께

이명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렇게 편지 씁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떡볶이를 보통은 백화점 지하의 푸드 코너에서 사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새로운 떡볶이 맛집을 찾았다며 좋아하더군요. 맛에 대해 까다로운 아내는 깨끗하냐, 종사자는 어떻느냐 등등 이것저것 물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손님한테 엄청 친절하시고 이렇게 퍼주면서 장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주셔.”

아들의 특급 칭찬에 방문 전부터 관심이 갔습니다.

전 그 주말에 바로 사장님 가게를 찾았죠. 가게 문을 열자마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형제처럼 보이는 두 사장님이 저를 향해 씩씩하

게 인사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나이쯤 되는 청년들이 반갑게 맞아주니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땐 떡볶이가 다 떨어졌더군요. 결국 먹고 싶던 떡볶이는 못 사고 조금 남았다는 튀김을 샀지요.

그때 계산하면서 잠깐 사장님과 얘기 나눴었죠. 장사가 참 쉽지 않다고 매출을 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던 두 사장님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기운 내서 꿋꿋이 버텨야 한다며 제 나름대로 응원의 말을 건네고 가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참 찡했어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요즘 청춘들 모습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더군요. 저 또한 불경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기에 사장님 말에 깊은 공감이 갔고 진한 동지애까지 느껴졌거든요.

자꾸만 신경이 쓰여서 어제 오전에 또 한 번 떡볶이를 사러 갔습니다. 군침 도는 새빨간 고추장 물 위로 군데군데 봉긋 솟아 있는 떡들이 보였어요. 마음 같아선 다 팔아주고 싶었지만 아침부터 웬 떡볶이냐고 혼낼 아내의 무서운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떡볶이 2인분, 튀김 1인분을 포장 주문하고 힘들어도 잘 견디자며 오지랖 좀 부리고 왔네요.

집에 오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자진 신고해서 아내에겐 크게 혼나진 않았어요. 사장님이 주신 4인분 같은 2인분의 넉넉한 양 때문에 떡볶이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더라고요. 정말 남는 게 있긴 해요, 사장님? 푸짐하게 퍼주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모쪼록 패기와 용기로 시작한 사장님의 떡볶이집이 더 번창하시길 온 맘 다해 기원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두 청년 사장님이 두른 전대가 두둑해지고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만발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은 대박 나실 거예요! 조만간 또 찾아가겠습니다. 사장님들 파이팅!

주말엔 투유

사랑하는 언니에게

김옥경 | 경북 성주군 가천면

언니!

언니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해.

언젠가 꼭 언니에게 편지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기뻐.

우리 자매들끼리 모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어릴 때 얘기잖아. 유복했던 우리 집이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졌던 그 시절 얘기. 그때 언니 나이가 스물이었어. 언니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관심받아야 할 나이였는데 동생 다섯을 두고 얼마나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했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 나네.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밑에 딸린 동생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전세방도 못 구했지. 결국 동생들 수를 속인 채 방을 구한 언니였어.

언니는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연탄 100장, 쌀 40kg, 밀가루

한 포대를 샀고, 남은 돈을 잘 쪼개 동생들 차비와 생활비까지 마련해줬지. 돌이켜보면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강단이 나왔는지 참 신기해. 우리 언니 참 대단했다. 난 감히 언니처럼 할 수 없었을 거야.

쌀 40kg으로 한 달 동안 버텨야 했기에 컵으로 정확히 계량해서 밥을 했었지. 조금이라도 쌀을 더 푸면 언니가 야단쳤던 기억이 나. 만약 언니가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굶주린 날이 더 많았을 거야. 고맙게 생각해 언니.

언니!

그리고 나, 언니에게 꼭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나 20살 되던 때 4년제 대학 안 보내준다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언니한테 대들었잖아. 그땐 왜 그리 철이 없었는지 정말 후회돼.

같은 20대였는데 언니는 가장 노릇을 했고, 나는 대학 보내 달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으니 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대학 못 보내 주는 언니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때 일을 이제라도 용서받고 싶어. 정말 미안해 언니.

우리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제 몫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도 우리 볼 때마다 보람 느끼지? 어느 동생 하나 크게 잘살지도 못 살지도 않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

무엇보다 형제애가 진하고 우리 자매들 마음이 잘 맞아서 좋아. 주위의 다른 친구들 보면 아무리 자매 사이여도 마음이 한곳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우리는 언니가 잘 이끌어줘서 단합이 잘되는 것 같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막내가 7살이었는데 어느새 막내도 오십 살이 넘었고 흰머리가 희끗하니 올라오고 있네. 늘어가는 잔주름을 보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

언니! 언니는 우리에게 아버지였고 엄마였고 인생의 길잡이였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열심히 살아 온 언니에게 큰 박수를 보낼게. 그동안 고단한 가시밭길을 앞서서 헤치고 나가주어 고마워. 이제 남은 인생은 웃기만 하자. 지금처럼 행복하자.

언니, 사랑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갑을 축하해!

- 언니를 사랑하는 둘째 동생이 -

주말엔 투유

부기에게

김윤경 | 경남 진주시 숙호산로

안녕, 나의 1호 애완동물! 부기야!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집 안에서 동물을 기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주말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있는데 연락이 뜸했던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 사실 별로 안 친한 친구라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긴 했지만 어느새 내 손은 통화버튼을 누르고 있었어. 그 친구가 바로 부기 너의 전 집사였지. 친구는 갑자기 이사 가게 됐다며 더 이상 너를 키울 수 없다고 했어. 그러면서 나에겐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부기 너를 키우면 분명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그런 걸까 이상하게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오케이!'라고 답했어.

널 처음 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네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 넌 너무 작았어. 손으로 만지면 꼭 다칠 것만 같아 걱정스러웠지.

하지만 우리 애들이 좋아하니깐 나도 곧 네가 좋아졌어. 내가 먹이를 줄 때, 집을 청소해줄 때, 부기 너는 눈을 뻐끔뻐끔 깜빡이잖아. 그럴 때마다 "엄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아 흐뭇해.

한 번씩 너를 거실 바닥에 놓아두면 눈이 휘둥그레져질 때도 있어. 누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했니? 거실 바닥 위에서 빠르게 걸어가는 널 볼 때마다 육상선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부기 너는 보면 볼수록 자꾸만 정들게 하는 존재야.

그런데 부기야! 나, 사실 너한테 좀 서운해. 내가 너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는데 왜 내가 만질 때는 머리를 쏙 넣고 쳐다보지도 않니? 남편이 만질 때는 머리를 쑥 빼고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건 기분 탓이니? 부기야, 이 엄마도 삐질 줄 알거든. 나한테도 머리 쑥 빼고 웃으면서 쳐다 봐주면 다음날 밥상이 달라져 있을 거야. 잘 기억하길 바란다.

부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가끔씩 우리 둘만 집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비밀 얘기 들려주잖아. 그때마다 묵묵히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혼자 소주 한잔 기울이며 축 처져 있을 때 속에 있는 고민을 너에게 다 털어놓곤 했는데 부기 네가 촉촉한 눈으로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

부기 부기, 우리 거북이!

말은 못 하지만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안다. 이 엄마도 우리 부기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같이 늙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자! 고맙다 부기야! 사랑한다 부기야!

엄마가 딸에게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여성시대에서는 설 특집으로 '엄마가 딸에게'라는 사연을 모집했다. 내게도 오래 전, 엄마가 보내주신 간단한 엽서(89년 7월 24일 일본 우편국 소인이 찍혀있다)가 있다. 벌써 33년 전의 일이다.

To. 희은 부부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이 더운 날씨에 조 서방 몸조심하고 몸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바빠지기 전에 미리 선물 보낸다. 혹시 이사할 지도 모르니 7월 24일은 전화만 하기로 하자.

이때 엄마는 생일 선물로 여름 이불을 보내주셨다.

다음 편지는 작년 8월(2021년 8월 13일) 나의 칠순 때 엄마가 전해주신 편지!

To. 우리 희은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큰딸! 이 편지를 약 30년 만에 너에게 써보네.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흔한 말이지. 항상 너를 볼 때나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찬데, '사랑한다' 그 말은 잘 나오지 않더라. 너를 생각하는 마음은 말로 못할 정도로 벅차!

많은 세월이 흘러도, 나는 너의 어렸을 때를 기억해. 어려서도 대범하고 잘난 척하고… 기억나려나? 3살 때 옆집 아이들이 저희 엄마 부를 때 '어머니~'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어머니~'하고 천연덕스럽게 부르던 일.

그동안 많은 일을 겪고 그 세월을 꿋꿋하게 이겨낸 나의 귀중한 보배, 희은아! 장하다. 정말 멋있다. 우리 딸 앞으로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살아줘.

- 못난 엄마가 -

나의 답장.

엄마! 만약 엄마마저 일찍 떠나셨더라면 우리 딸 셋은 얼마나 의지가지없이 떠돌았을까? 생각을 하면 곁에 계시는 게 새삼 고마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다 고아잖아요.

며칠 전, 친구 친정엄니도 100수 생신상을 LA 요양원에서 받은 후 떠나셨다니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찾아가 뵐 수 없는 그 마음!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란 말이 맞아요. 결혼 후 고향 떠나서 살던 뉴욕에서부터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었음에 남편이 정말 고맙지요. 희경과 희정이 아이들(손자 3, 손녀 1) 다 키워주시고 고만고만했을 때부터 아이들의 음악성과 그림에 대한 관심도 다 엄마 쪽 기질이지요. 희경이 아들 둘 다 같은 계통 일을 하며(큰아들은 조명, 작은아들은 배우) 세 모자가 나름 동료로서 이해하는 바가 크잖아요? 희정이네 큰 아이도 외탁했고, 어린 날 함께한 할머니 영향이 지대했지요.

2015년 12월 모녀 3대가 일본 여행 잘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타러 가는 길에 느닷없는 심부전증 발작으로 택시 안에서 엄마는 의식을 잃었죠. 희경이와 일주일간 둘이 기대어 그 겁나고 두려운 시간을 견뎠지요. 희경이마저 곁에 없었더라면 나는 돌아버렸을 거예요. 엄마가 용을 쓰시다 의식을 잃었던 순간은 막내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질러본 제일 큰 고함이었을 거예요.

"안 돼! 엄마, 안 돼! 이대로 못 가!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제발!"

응급실에서 가위로 잘려진 엄마의 옷은 세로로 두 동강났고, 희경과 나는 일본의 세밑과 세시풍습을 지켜보며 물 한 병조차 구하기 힘듦을 실감했지요. 가게는 다 닫았고, 숙소조차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여행사의 배려로 쫓겨나진 않았지만 버스도 제한 운행으로 숙소까지 아무 인기척 없는 캄캄한 길을 둘이 걸어온 적도 여러 번.

희경은 방송 녹화로 먼저 돌아가고 대신 큰 조카가 와서 동무 해주는 3주 동안이 마치 3년 같았네요. 감히 입 밖에 조차 뱉지 못한 건 심장발작 후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안위였어요. 이런저런 관을 꽂고 식물인간이 되어 계신 건 아닐까? 조마조마했어요.

심장내과 특수병동으로 면회 갔을 때, 온통 유리창인 큰 방에 엄마 혼자 주렁주렁 관을 꽂고 우릴 보고 웃고 계셨을 때, 세상 기적이 따로 없을 정도였지요. 그날로부터 만 6년이 지났네요.

굳건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엄마! 떠나보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던 우리 딸 셋에게 서서히 준비할 시간 주심에 감사드려요. 엄마, 사랑해요.



징크스와 루틴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여성시대의 일요일 코너는 '여성살롱'이다. 과학 큐레이터 이지유 작가와 함께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 보는 시간. 최근에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알아두면 정말 쓸 데 많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 월간 여성시대를 통해 다시 되뇌어 본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고비'들과 수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최선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넘어져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소중하다.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인생이다. 최악의 상황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때 적잖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소위 '징크스'라는 것이다.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실력이 비슷한데도 희한하게 그 팀만 만나면 진다 등등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맹신하고 그것에 얽매여 정작 집중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지유 작가와 같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징크스는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순전히 기분 탓이라고.

징크스와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이 바로 '루틴'이다. '루틴'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절차를 말한다. 물론 한 번에 쉽게 루틴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경험하며,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후, 자신만의 최적화된 루틴을 설정하고, 중요한 일이 닥칠 때마다 걱정만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루틴을 수행하며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징크스'와는 달리 '루틴'은 과학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나의 경우 다행히 별다른 징크스는 없고, 상황별로 몇 가지 루틴이 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한다. 직업 특성상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진행자도 여러 사람 앞에 서면 떨리게 마련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낯설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경우를 이겨내기 위한 루틴을 개발했다. 행사를 시작할 때, 첫인사를 건네면서 객석을 빠르게 자세히 훑어본다. 반응이 좋은 청중들을 발견해 내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사 시간 내내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진행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당황스럽고 민망한 순간이 올 때마다 지원군들의 따뜻한 표정을 보며 위안 삼고, 작은 걸 터뜨려도 강렬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함박웃음으로 더 큰 힘을 내는 것이다.

나의 이런 루틴은 까다로운 행사를 진행할 때 특히 빛을 발한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그룹 회장이 참석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들을 관객으로 한 행사 등에서 그 효과를 보았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징크스와 루틴은 '천지차이'인 것이다. '징크스' 때문에 쓸 데 없는 걱정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놓칠 것인가, 부딪히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성공의 기쁨을 맛볼 것인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508호(2021.07.02) 유효기간(2022.07.01)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중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 BOX POS 고객센터(☎02-729-76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